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 필 수
편집인겸 지 재 운
주간 강 병 준
편집장 강 병 준
외대신문사(☎직962－7128,교965－7001)
외 대 학 보(☎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 영 로

제523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9월 12일 (화요일)

학원자주화사업 전망 불투명

양 캠퍼스 복지부분에 국한 전개중

장기·체계적인 학원자주화 사업 꾸려내야

서울·용인캠퍼스 2학기 학원자주화 사업이 임수경양·전교조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쟁점사안에 묻혀 미온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정상으로도 추석연휴가 장기간이라는 점등 여러가지 악조건이 놓여있어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캠퍼스의경우, 총학생회 산하 「학원자주화투쟁 특별위원회」(이하 학자특위)가 지난5일(화) 학자투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6일(수)에는 발족식을 거행하는등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형식상의 진전에만 그쳐고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면에서 학자특위는 공중전화의 증설, 소공원의 죽은나무 10여그루교체, 쓰레기통증설 등 학교측과의 협상에서 단순복지시설확충부분에만 타협을 보았을 뿐, 화장실이 없는 노천강당의 문제와 고시실 이전, 교수-학생정례회의 상설화 및 강화, 생활협동조합의 건설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요망되는 사업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도 2학기 개강이후 지난 8월31일(목), 9월7일(목) 각각 학교측과의 면담을 통해 티머날 이전 후 버스의 운행회수가 줄어든 교통문제와 도서관 건립문제등의 부분적인 복지사항만을 거론했을뿐, 지난해 학민약속사항의 전반적인 점검이나 이번학기 학원자주화사업의 구체적인 진망등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자연과학대 이모군은 「공안정국 타개등 시국관련 사안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조선대·동국대등 학원자주화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대응이나 뚜렷한 학원자주화 사업이 전개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총학생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임양방북 찬반 엇갈려

국가보안법 「개폐필요」 90.3% 답변

용인캠퍼스 학생 52.7%가 「임수경양(서문·불어4) 방북활동은 북한의 선전에 이용당한 것」이라는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임양방북 활동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1일(금)부터 9월5일(화)까지 총학생회 홍보위원회가 「한반도의 통일과 주한미군」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7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밝혀진 것으로 이의 입양의 평양축전참가 자체만을 묻는 항에도 응기있는 행동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학생이 42.9%인 반면 통일에 대한 순수한 뜻은 이해하지만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4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90.3%의 학생이 폐지 또는 개정돼야한다고 밝혔으며 주한미군과 핵무기에 대해서도 91.8%가 마땅히 철수해야한다고 답한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홍보위원회에서도 「의외」라고 밝혔듯이 다수의 학생이 임양방북을 부정적으로 보는것으로 밝혀져 임양구출투쟁을 주요사업중의 하나로 상정하고있는 총학생회 2학기 사업이 내용·방법상 제조정의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구 구국기도회

5일 노천극장서 열려

임수경양·문규현신부 사법처리반대, 국가보안법폐지, 전교조사수를 위한 「동부지구 크리스찬 청년학생구국기도회」가 카톨릭학생협의회와 기독학생회주최로 동부지구 3개대 학생 및 「강동·송파지구 애국 카톨릭청년공동체」등 소속학생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5일(화) 본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신·구교계 학생이 자리를 함께해 「사회현실참여」라는 종교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린 이번 구국기도회에는 최근 쟁점이 되고있는 임수경·문신부 사법처리반대활동에 대한 지지등이 결의되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은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은 참되고 폭넓은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가 채택되었다.

용성총련, 공안분쇄대회 개최

이내창군 사인규명 결의

「임수경·문규현신부 사법처리반대및 전교조사수를위한 4만학도결의대회」가 용성총련주최로 지난 9월6일(수) 2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경원대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이내창군(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의문사에 대한 사건철저해부및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서명운동등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투쟁선언문을통해 미군철수, 국보법철폐·전교조합법성쟁취등을 위해 싸워 나갈것을 결의했다.

집회후 학생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시위를 전개하던중 전경에 쫓겨 도서관 건물로 피신, 농성을 전개하다 자진해산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임수경학우 사법처리반대및 민족민주운동탄압 분쇄결의대회」를 지난 9월8일(금) 열고 경원대 집회때 경찰학내난입사례를 규탄하려하였으나 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와 총학생회의 준비부족으로 가두홍보는 벌이지 못했다.

용인 복지위원회 장학생 선발

용인캠퍼스 학생복지위원회는 89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생선발 신청접수를 오는 9월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받는다.

2학기등록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장학생선발은 영어과 3명, 독어·불어·서반아어과 각2명, 그외 나머지과에 각 1명씩 배당되며, 신청할 학생은 재산세 증명서, 과회장추천서, 성적증명서 각1통씩을 구비 각단대 학생회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6일 서울대 서총련 2학기 진군식에서 수배중인 서총련 문광명군(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의 호위아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총련, 하반기 진군식거행

서학련·전총련 건설움직임 보여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2학기 진군식」이 2천여명의 각대학 학생들이 모인가운데, 본교 총학생회장 정제원군(동양·일어4)의 사회로 지난 9월6일(수)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서총련은 이날 진군식에서 ▲노동자·농민·교사·도시빈민과의 연대강화 ▲임수경대표의 방북등 상반기 성과 계승, 발전 ▲서총련의 조직적역량강화등을 전제하고, 하반기 정책노선으로 ▲공안정국분쇄와 구국운동의 비약적전개 ▲민주쟁과제(악법철폐) 달성과 5공청산및 미·노일당 조기격파 ▲각대학과 희장단까지 포함하는 서학련건설 및 전총련건설의 토대구축을 선언하였다.

이날 서총련부의장 문광명군(서울·노어노문4)은 전군선언문을통해 「물러설수 없는 작금의 미·노일당과의 대결에서 청년학도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오직 굴종과 오욕의 역사로 점철될 뿐이다」며 「이에 백만청년학도가 사회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나아갈바인 반미구국투쟁과 자주·민주·통일의 2학기 대장정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진군식에는 「서민학련」대표단이 참석하여 제도언론의 「운동권내 세력다툼」과 관련해 「서민학련은 이땅의 민주와 반파쇼·반미전선을 구축하는데 전대협과 공동연대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혀, 언론의 허위보도를 규탄하였으며, 또한 서총련산하의 전교조탄압분쇄와 합법성쟁취를위한 대책위(위원장 최선호서림대총학생회장)발족식이 진행되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현상수배된 문군을 체포하기위해 식장에 난입한 전경1천명은 최루탄을 쏘며 수색을 펼으나, 학생들의 완강한 제지로 실패하였다.

사 령

임

정기자

김유경 (동양·이란어1)
류형조 (자연·환경1)
박재일 (동양·아랍어1)
이원영 (서양·독어1)
임동식 (인문·철학1)
정성엽 (동문·아랍어1)
주재영 (인문·철학1)
최원일 (법·법학1)

〈이상8명 9월12일자〉

면

수습기자

김경태 (상경·경제1)
윤동수 (동양·아랍어1)
최원일 (동문·아프리카어1)

〈이상3명 8월31일자〉

하수도

▲북한 장교 포함 3명월남
－올 때도 됐지…
▲노태우, 새통일방안 발표
－영구적 분단공존체 방안
▲한가위맞아 귀향 행렬
연이어
－통일의 꽃을 전국에 심자

용인 편재승군 실형선고받아

가족, 항소심 신청

지난 5월8일(월)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이하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 수감중이던 편재승군(서문·서반아어3)이 .9월5일(화)성남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복역중이다.

편군은 성남경찰서 성호파출소장 권총탈취사건과 관련 지난 5월6일(토) 자택에서 연행됐으나 총기탈취혐의를 벗고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한편, 편군의 가족은 1심에 불복 항소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알 림

본보는 한가위 연휴를 맞아 이번 신문(523호) 발행이후, 한 주간을 휴간합니다.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신문(524호)은 9월26일(화)자로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외 대 학 보

반의지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총장님 / 한바퀴 더 돕시다」

86년당시, 국민학교에서나 불수있던 「아침조회」가 조선대운동장에서 열리곤했다.

교수와 직원이 줄맞춰서서 박철웅총장의 훈시를 듣고, 운동장을 뛰고, 또 뛰자며 아부하는 모습은 87년내내 이어졌던 학생들의 집거와 파업으로 박철웅총장과 함께 사라졌다. 오륙십세의 노교수가 운동장을 뛰는 모습, 인자안한다고 학생을 구타하는 총장, 시국선언한 교수에게 사표강요하는 대학. 이것은 어쩌면 형태는 다르지만 당시 모든 대학의 비민주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선·세종·동국대 총장해임요구」

9월5일자 모일간지 1면머릿기사는 문교부가, 과거의 때를 벗고 학내민주화에 앞장서고있는 몇몇대학에 위와같은 「요구」 아닌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지난 6월 고려대등 5개대학에서 2백94명을 부정입학시킨 것이 적발됐을시 검찰조사가 유야무야 끝난 점을 감안할때, 문교부가 말하는 「학원의 부정과 비리에 단호한 대처」와는 목적한 바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조선대 총장해임요구이유를 보면 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시국사태관련 제적자·부상자에게 장학금지급」, 「시국사태관련 해직교수 복직후 일괄승진」을 이유로 「학원의 아버지」를 해임시키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각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직선제에 의한 총장선출」, 「교수·학생정례회의에서 학생의 학사행정참여」가 받아들여진 몇몇대학을 탄압, 추후로 어느 대학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는 연초부터 자행되어온 대학언론과 학생회에 대한 탄압이 결국 민주화되고 있는 대학에 까지 미친 것이다.

거꾸로 돌아가는 문교부의 시계바늘은 교수가 학생을 못믿고, 학생이 교수를 불신하고, 교직원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강요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학원의 자주권은 존중되어야하고, 삼자모두가 이 것을 쟁취하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할때 가중되는 학원자주화, 아니 「대학」그 자체에 대한 탄압을 이겨나갈수있을 것이다.

〈한성원〉

수습기자 추가모집

시대는 소신 있는 젊은이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유언론, 정론직필의 열망을 지닌 분은 누구든지 지원하십시요. 외대학보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 격:1학년 재학생
△모집부문:일반기자 ○○명
사진·컷기자 각○명
△제출서류:응시원서(본사소정양식)1통, 사진1매
△원서배부및 접수처:
서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12호)
△원서접수기간:9월12일～9월27일
△시험과목:
1차필기시험:국어·상식·작문(기사작성포함)
2차면접시험:1차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시:1차－9월27일(수), 2차－9월28일(목)

외 대 학 보

자대기련 공동기획광고1－전교조 지지

이젠 믿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내일은 노태우 아저씨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겠다.
"우리 선생님 돌려주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안들어 주면 대통령 아저씨가 암만 "믿어주세요…"해도
믿지 않겠다.

—— 충북 J여중 1학년. 진미혜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

사 설

문교부의 교권침해를 규탄한다

—교수와 학생이 하나되어 교권을 지켜나가자

지난 9월1일(금) 동국대학교 이지관총장등 학교관계자 6인이 부정입학과 관련, 전격적으로 구속되었다. 발표당시 사학비리와 관련한 국민적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4일(월) 문교부가 조선대등 5개 사립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한 위법을 빌미로 총·학장의 해임을 요구하게되자 학원에 대한 교권침해를 규탄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교권은 교수와 학생이 가지는 두부분으로 구성된다. 학생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비교육적 상황에 대한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따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스스로의 양심에 의한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사행정을 운영하는 자주적단체결성의 자유를 갖는다. 이러한 교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의 일부이며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인정되기보다는 교권을 찾아 싸우는 주체에 의해 획득되어 지는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5공치하의 지도교수제라는 악폐를 기억하고 있다. 교수가 지닌 학생지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를 권력의 지침에 따라 해당학생을 감시하고 수시로 보고하는 비교육적제도로 변질시켰던 것이 학생 지도위원회 제도이다. 물론 88년 각 대학 학칙개정작업중 거의 철폐된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문교부의 압력으로 다시 부활되었다고 한다. 또한 근래에 들어 학내 유일한 학생자치조직인 총학생회를 무력화시키기위한 동록금과 학생회비의 분리수납이 문교부에 의해 강요되어 시행되는등 6공에 의한 교권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교권의 핵심사안인 학문연구의 자유와 그에준한 자율성을 토대로 해야할 교육행정에 관한 지나친 간섭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내의 진보적 학문연구 풍토를 일방적으로 좌경시하여 확대된 연구의 폭을 축소시키고 있고, 교수·학생·직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일부 사립대에 대한 탄압은 그 강도를 더해가고있다.

현재 가해지고있는 대학자율에 대한 탄압은 방학중부터 지속된 대학내 학생운동세력을 무력화시키기위한 의도에 다름아니며, 민족사학으로 자리잡는 몇몇대학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이후 계속될 교권침해를 암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대학내 교수·학생이 지닌 교권의 전면적부정이며, 심각한 통치구조의 위기를 넘기려는 정권측의 의도인것이다.

대학이라는 최고학부의 교육기관이 그동안 상징적이나마 가지고있던 교권은 이제 지배집단의 물리적작용으로 인해 심하게 파괴당하고있는 실정이다. 당면한 89년도 하반기 학원자주화투쟁의 첫걸음은 학내의 산적한 문제해결과 더불어 교수·학생이 단결하는 모범으로 시작하는 교권수호투쟁이 되어야 할것이다.

◇현단계 통일운동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정치정세변화

오 충 환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 89년 수료〉

우리가 통일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점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의 두가지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통일논의에 있어 대외환경적 요인은 자주통일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입장은 상호간에 자국의 이익을 위주로한 교차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데 있다고 보겠다. 특히 미·소는 상호가 군축협상을 통해 제반 국제 정치질서 속에서 신데탕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주변상황들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그리고 자체내의 통일의 호조건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소련 공산당 해외 홍보지 「노보이 미르」가 제시한 한반도 긴장완화방안은, 남북한간의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군비축소를 실현시킨다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번의 긴장완화방안은 남북 적절대화의 촉진을 위해 남북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 무력불행사조약에 대한 국제적 보증,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 등 상호신뢰구축에 합의하도록 미·소가 균형있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제안에서 소련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중단과 연계시키고 있음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과 함께, 지난 6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리처드 솔로몬 국무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5개항의 신뢰구축 조처를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장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바 있다. 그는 여기서 「고르바쵸프가 유럽에서 약속한 것처럼」이란 표현으로 (신뢰구축에 관한)북한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9. 9. 3일자 한겨레신문)

물론 이러한 미·소의 부분적 발표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리라고는 기대치 않지만, 여기서 최소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신데탕트 국면에서 그들의 협조관계가 강화되면 일단 통일에 관한 대외적 장애요인의 극복이 이전에 비해 보다 나은 조건으로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금은 긍정적인 주변상황에 대해 최근의 국내상황을 살펴보자. 그동안 국내 민주화운동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감이 없지않았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통일운동의 확산과 활성화에서 기인한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볼때, 이러한 현상은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분리시켜 사고하는 오류에서 야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7년의 학생운동을 통해 더욱 표면화되고 문익환목사의 방북 이후 가속화된 통일운동의 과정과 5공청산문제와 제반 정치문제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6공화국은, 결국 공안정국을 창출하고 그러한 입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수세국면을 공세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대비되어 각 야당에는 야합과 분열 그리고 위기상황을 만들어냈으며, 재야 및 학생운동세력에게 또한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 특히 임수경양의 평양축전참가를 빌미로 전개된 전대협과 학원탄압책은 여름방학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전개 속에서 현 정권은 일마전 「통일공정회」를 통해 각계의 통일방안을 수렴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고, 이어 지난11일 노태우는 국정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통일문제에 관한 이전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자구적통일의지를 대국민차원에서 홍보하고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들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은 신데탕트의 국면속에서 국제적 입지 강화와 대(對)북 차원에서의 국제정치상 선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기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내 민주화운동세력과 국민의 관심을 통일로 집중시키면서 앞서 말한바 있는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분리를 유도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는 아주 명백하다. 그들이 주장한 소위 「민족 공동체 구현」이라는 통일안과, 또한 그들에 의해 그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유엔단독가입」이라는 두가지의 상반된 주장은, 결국 국내적으로는 민족공동체 구현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유엔단독가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볼때 더무나 반민족적임은 자명하다.

그와 더불어 국내정치상황 속에서도 현 정권은 지속적인 공안정국을 통해 5공유산의 조속한 청산과 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전교조에 대한 강경탄압, 고문조작 사건, 5공시대를 능가하는 수배 및 구속자수, 노동자·농민·도시빈민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등을 보면 여전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본질을 알 수 있다. 특히 얼마전 주요 당직개편을 통한 5공시대의 강경인사의 대거 기용 등 일련의 과정을 볼때, 6공 집권 2주기에 들어선 그들의 정치구도 재확립과 보수대연합을 통한 차기대권 및 영구집권의 의도가 짐작되어진다. 과거 5공 시대에도 집권후기에 당직개편을 통해 쿠데타의 실세들이 표면화되면서 8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6공화국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그 좋은 가늠자가 될 것이다.

▲문목사 방북이후 가속화된 통일운동은 남북간의 자주적 교류를 확대시켜 기만적 북방정책의 모순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볼때 그동안 공안정국 속에서의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 분리의 이분법적 사고는 명백한 오류였으며, 지금은 무엇보다 총체적 현실파악과 각 운동간 역량의 재결집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외신분석

소련 민족분규의 원인

김 형 준
〈대학원 동구지역학과 석사과정 2학기〉

스탈린 민족정책 오류에서 기인한 민족분규

고르바쵸프, 「민족동등」원칙아래 개혁진행

아르메니아사태와 같은 민족간의 갈등과 함께 소련의 민족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련 에스토니아공화국이 지난 8월초 소수민족에 대한 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가 하면, 리투아니아공화국에서는 폴란드와 함께 지난 1939년 체결된 이른바 독·소비밀협약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1940년 소련군의 리투아니아 진입을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국내언론은 이렇다할 논평을 생략한 채 「뿌리깊은 민족차별…갈등 행동화」 혹은 「소—발트3국 정면대결 양상」과 같은 제목을 붙여 커다랗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소련의 소수민족문제를 보는 서방 통신사의 눈을 의심하는 것은 들쩍지고 국내언론의 이러한 취급경향은 한번쯤 짚고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런 분석들을 갖고 있지 못한 일반시청자나 독자들은 오늘날 소련사회가 마치 폭압과 착취로 뒤범벅된 동토로 여겨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유도하는 언론매체들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소련의 공식명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며, 소련에는 126개의 민족이 15개 공화국으로 연방이 형성되어 있다. 소련에서의 소수민족 문제의 근원은 소비에트 연방의 성립기에 있었던 볼셰비키당내의 민족문제 논의에 있어서 볼셰비키당내의 의견차이, 즉 레닌과 스탈린의 민족문제를 보는 시각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덧붙일 것이 있다면 제정러시아 시대의 이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이 스탈린의 민족정책 속에 일관되게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던 러시아를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해결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소수민족문제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민족문제에 대한 레닌의 견해는 한마디로 소수민족들의 문화적 제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었고, 「세계 노동계급운동의 국제적 문화」에 대해서는 민족적 다양성을 포함한 수많은 다양성이 한데 합쳐진 하나의 문화로 규정하였다. 반면 스탈린에 있어서 민족이란 「부르조아 원칙」에 불과한 것이며, 「계급투쟁이라는 사회주의 원칙」과 대비되는, 사회민주주의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1919년 3월의 볼셰비키당 제8차 전당대회부터 쟁점화되었던 민족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12차 전당대회를 통하여 스탈린 주의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이로써 볼셰비키당은 레닌 민족정책의 혁명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결과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소련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련 공산당이 줄곧 스탈린의 민족정책을 고수해 온것은 분명아니다. 흐루시쵸프는 1956년 제20차 당대회를 통하여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라는 노선을 채택하여 탈스탈린화를 추진함으로써 스탈린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최근의 고르바쵸프체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명하면서 소련의 국가건설 및 발전과정에서 모순이 있을수 있음을 시인하고 인류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함과 아울러 민족감정의 존중 및 소수민족의 언어정책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민족정책의 기조는 민주적 절차의 틀안에서 그리고 국제주의적 다민족 공동체의 기반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는것이다. 사실 최근 발트3국이 한바 있다. 특히 최근의 고르바쵸프체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명하면서 소련의 국가건설 및 발전과정에서 모순이 있을수 있음을 시인하고 인류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함과 아울러 민족감정의 존중 및 소수민족의 언어정책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민족정책의 기조는 민주적 절차의 틀안에서 그리고 국제주의적 다민족 공동체의 기반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는것이다. 사실 최근 발트3국이 르바쵸프의 민족정책의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 소련 정책결정자들 내부에서 현재와 같은 지방 공화국의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고르바쵸프의 입지조건들이 얼마나 공고한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고르바쵸프체제 하에서의 소수민족 정책은 민족공동권을 인정했던 레닌의 민족정책과 다름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계정러시아의 이민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기사 제목으로 사용한다든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스탈린의 민족분리정책과 같은 오래된 이야기를 제언급함으로써 현 고르바쵸프 체제에까지 덮어 씌우려는 무분별한 제도언론의 보도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역사적 과오를 씻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소련에서 스탈린적 모델의 오류를 역사에서 삭제하거나 미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오늘날 소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캐케묵은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며 올바른 세계이해와 인류의 이상인 세계평화의 실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뿐인 것이다.

미네르바

용기와 실천

▲불교의 반야심경을 보면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 아제 모시 사바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문구는 말보다 앞서는 「실천」이야말로 모든 진리의 기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가치가 상실 되어버리고 속물적 이기주의만이 판을 치는 이 사회에 각종 「공약」과 「흰소리」만 난무한채 거리에 뒹굴고 있음을 볼때, 그 수없이 되풀이되는 허망한 「언어의 유희」속에 죄없이 귀가 솔깃하고 제풀에 넋빠져 허둥댐을 느끼게 된다.

▲현실과 등을 지고 앉아서 「내 책임은 아니로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잠꼬대를 하며 제법 군자연하고 초연한 시늉을 해대는 난세속의 영웅(?)들을 자주보게 된다. 또, 자신의 「내적」세계에만 충실함으로써 가장 자유로울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볼수 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는 자에게는 공통의 길이 열려있다. 그러나 잠자코 있는 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를 바라볼 뿐」이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이 모두는 망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의 모순을 감지하고 그것을 변혁시키는 일은, 살아있는 현실속의 살아있는 인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혁명적 민주주의자 체르느이 예프스키는 「흙모래 뒤집어 쓰기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신발이 흙탕물에 더럽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은 변혁의 길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세의 인간들은 사회활동에 있어서 남의 눈에 뜨이는 일, 그것도 화려해 보이는 일만 고집하고 그일이 잠시의 비난을 받을 일이면 대개 꺼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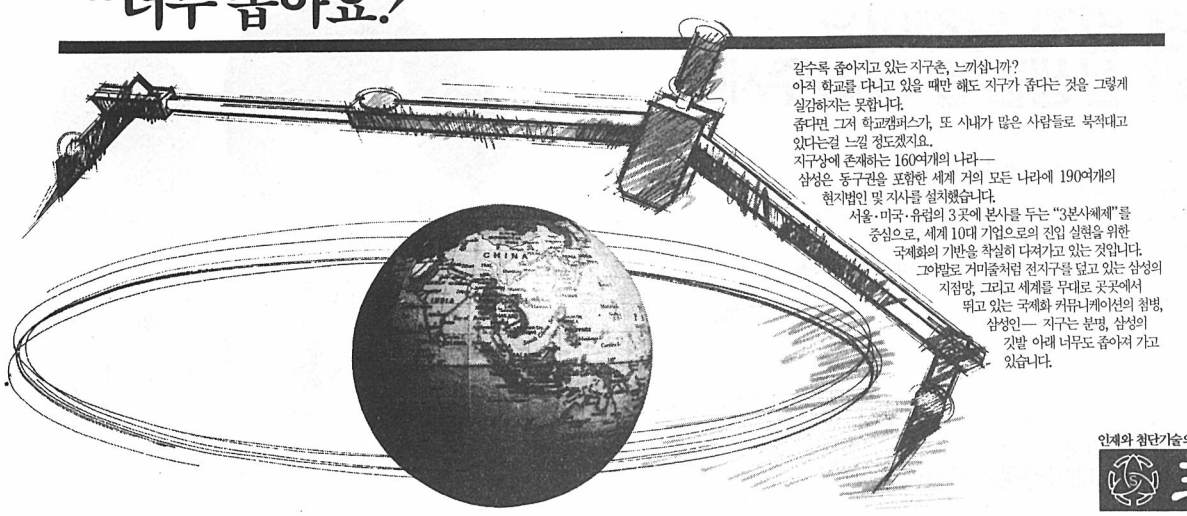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사회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인간상은 우선 용기있는 사람, 즉 사회적 실천의 장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앉아서 가만히 얼굴을 찡그리며 머리만 짜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과정에서 진리를 터득하는 사람이다.

▲용기있는 사람은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의 영역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사적인 이익의 일부, 때로는 전부를 포기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줄 안다. 변드르하게 화려한 말보다 투박하지만 실천을 담고있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뒤집혀버린 세상, 숨막히는 세상을 바꿀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인 것이다. 〈옥〉

三星의 개발견—③국제화

"너무 좁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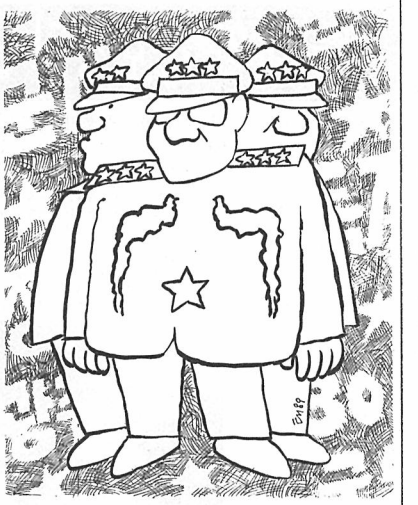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지구촌, 느끼십니까?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만 해도 지구가 좁다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좁다면 그저 학교캠퍼스가, 또 사내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다는걸 느낄 정도겠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160여개의 나라—
삼성은 동구권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190여개의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치했습니다.
서울·미국·유럽의 3곳에 본사를 두는 "3본사체제"를 중심으로, 세계 10대 기업으로의 진입 실현을 위한 국제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전자구를 덮고 있는 삼성의 지점망,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곳곳에서 뛰고 있는 국제화 커뮤니케이션의 첨병, 삼성인— 지구는 분명, 삼성의 깃발 아래 너무도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80년대 한국사회변화와 정치체제

다시서는 80년대 승리하는 90년대

<3>



1.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민족민주운동의 진일보한 성장을 이룩해온 80년대는 최근 공안사건을 빌미로한 국가권력의 탄압확대로 또다른 정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른바 「보통사람의 시대」를 내걸고 시작했던 현정권은 처음부터 광범한 민족·민중적 토대를 지니지 못한데서 기인한 위기의 고조를 그간 유지했던 자유화조치 폐쇄속에 성장한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적·간접적 탄압국면의 조성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정권의 공세는 사회기의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행해지면서, 가시적으로는 전교조·전대협 등 각 민주화운동단체에 취해진 와해조치로써 민주화정세에 제동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단절적이나마 5·18광주민중항쟁과 함께 등장한 80년대 정치권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악과 구체적인 대민중 통치전술을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의 현대사속에 반민족적·반민중적 잔재청산의 계기와 함께 현정권의 본질규정과 이후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를 규정할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80년대 군부정권과 통치전술

①예속군부정치권력의 성립

현 정치권력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현대정치사속에서 역대정권이 갖는 역사성을 고찰함에서 시작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적으로 반공·친미노선으로 일관했던 이승만정권기와 5·16군사쿠데타로 성립된 군사정권기, 그리고 이를 마감하고 80년대에 들어선 「신군부세력」의 집권이 모두 이러한 사회경제적 연관성속에 고찰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사회속에 성장해 온 정치군부의 성장과정과 이들의 권력대체를 가져오는 70년대말·80년대초의 상황을 조금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군부의 성장은 단순히 「소수정치군인」들의 일시적 진출이 아닌 해방이후 현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산돼 온한국군부의 구조적 산물이다.

해방이후 창군시 대다수가 친일적 성격의 인물들로 구성된 상층 군부는 그들이 미용병의 형태였다는 것은 들째하고라도 민족반역자라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도 쉽게 이승만정권과 결합이 가능하였다. 친미로 계속된 이정권기의 비호속에 이들은 당연히 권력의 성실한 수행자로, 역할지워졌고 반민족적이고 대외 의존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다. 이들은 4·19혁명을 통한 민중들의 진출을 지지시키면서 등장한 박정희정권의 물리력을 동원한 파시즘적 군부통치기를 지나면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70년대 초반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함과 동시에 권력유지에 급급했던 정권은 「유신체제」라는 전무후무한 초국가적 억압장치를 만들어내며 군부와 각종 군사기구를 통한 정권의 공고화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70년대말 부마항쟁등 민중들의 민주화투쟁이 극대화되며 유신체제는 말기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에 더불어 이미 정권의 외적 규정원인으로 작용하는 미국과도 박정권 자체의 노선에 불만을 품은 당시 카터정권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내외적 모순이 중첩되며 마침내 10·26사태를 계기로 18년간의 낡은 대리군사정권은 붕괴되고 새로운 「80년대 신군부」 정치권력의 등장이 예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신군부세력은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개혁명분으로 악법을 탄생시키고 합법적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현정권의 정책, 대의명분·민중탄압의 이중구조

대외종속성규명이 남한정치권력의 본질과 성격밝혀

②5공화국의 성립과 전개과정

알려진 바와 같이 박정권당시 권력유지를 위해 양성된 군부세력들간의 파벌싸움이었던 12·12사태로 내부정리까지 마친 신군부세력은 80년에 들어서 5·17쿠데타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그 기반을 구체화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민중의 지지가 없는 미약한 기반과 물적토대가 없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정치권력의 탄생을 가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가장 커다란 요인의 변수가 존재했다. 이는 해방과 분단 이후 줄곧 남한정권의 식민지적 예속과 현지 지배기구를 통한 군사·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온 미국이라는 외적요인이었다.

특히 5공화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후 한국사회에 매우 커다란 파급을 가져오는 사건의 하나인 80년 5·18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출범에서 부터 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80년당시 미국무성의 발표를 살펴보면 「우리는 한국의 남부도시 광주에서의 민간인 투쟁을 깊이 우려한다… 사태가 계속되어 폭력사태가 확대된다면 외부세력이 위험한 오판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며 군부의 무차별한 진압은 축소한채 과거 이데올로기공세의 전형적인 한 형태인 「북한의 오판」을 강조하며 광주민중항쟁 진압에 사실상 묵인을 표시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남한의 민주화가 한반도의 반공기지화구축전략에 타격을 가져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려하였고, 특히 이듬해인 81년 레이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극명해진 「힘의 우위」정책에 일환인 동북아대소전진기지를 목적으로 실시했던 대한반도정책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확실해지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쿠데타와 민주화운동의 탄압으로 80년대를 시작한 5공화국은 정권창출의 정당화와 유지를 위한 각종 대민중전술을 펴게된다.

5·18광주민중항쟁을 전후로 아직 정면에 나서지 않았던 신군부가 자신들의 세력확보와 법적, 제도적 장비마련을 위해 소위 「정의사회구현」을 내걸고 실시한 음직임들이 그 하나이다.

이는 마치 유신체제당시 「근대화」등의 미명으로 안으로는 민중탄압과 밖으로는 대의명분을 세우기위한 이원적 기만정책을 세웠던 것의 재판이었다.

사회혼란과 남침위협등을 내세워 5·17확대계엄령조치를 내리고 집회, 시위금지, 민주인사연행등의 강경책을 실시하였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구성해 군부정권에 불리한 각종 법률을 개정하고, 또한 개혁을 명분으로 악법들을 탄생시켰다. 이에 의해 정치·종교·학생 등의 민주화운동세력에 연금과 구속의 형태로 합법적(?)탄압조치가 실행되었고, 주지하고 있다시피 공무원·언론인 강제해직사태, 삼청교육대사건 등도 모두 여기에 근거한 「사회정화」이름아래 실시된 탄압책이었다.

정권의 통치전술로는 이처럼 5공화국초기의 대의명분을 위한 조치못지않게 80년대 전반적으로 일관돼온 특유의 이데올로기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권력유지와 대리통치 종주국인 미국의 양보할 수 없는 이해가 걸린 반공이데올로기의 재현된 모습이었다. 이는 86년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 유성환씨가 국회에서 통일국시발언으로 구속된 사건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두번째는 소위 우민화정책을 들 수 있다. 5공화국의 유독 늦어난 향락적 소비문화·상업문화의 확대·파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민중의 탈정치화라는 효과는 물론 또한 미국의 경제·문화적이득과 지배구조 안정화의 일환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선진조국」과 「복지사회」를 향한다는 5공화국의 모든 통치정책은 미국의 정치적요구와 이에 기반을 둔 정치권력의 유지에 근거하여 추진돼왔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토되며 성장하기 시작한 민족민주운동은 대미의식의 전환을 주축으로 강권적인 전두환정권과 미국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87년 상반기를 거쳐 6·29선언의 직전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③6·29선언과 통치전술의 변화

5공화국말기에 접어들면서 군부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의 87년 초반부터 매우 숨가쁘게 돌아간다. 이는 표면적으로 군부세력과 보수야당, 그리고 성장한 민족민주운동세력간에 개헌문제를 놓고 벌어지게 되었다. 축적된 대중역량의 진출이라는 6·10민중항쟁의 불을 당겼던 호헌조치는 이후 차기 장기집권을 계획한 통치전술의 일환인 6·29선언의 형태로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미 남한에 형태적으로 가시적인 민주화와 실제적으로는 군부의 통치연장을 구도한 미국의 의도는 이후 대통령선거와 이듬해 4·26총선을 통해 오히려 6·10민중항쟁에 개량적조치로 대처하려는 전술이 온폐되어 있었다.

이처럼 민중의 자주성을 기만하고, 또 다시 반민족적인 예속군부정권의 형태로 등장한 6공화국은 이전 대리과쇼정권들과 다를바 없는 대외명분식 전술을 구사한다. 내·외적요인으로 불가피하게 기인한 7·7선언을 통한 북방정책의 표방, 5공단절을 하겠다는 비리척결의 제스추어등이 모두 이러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개량화시켜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또한 집권2년간에 걸쳐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주요한 이데올로기적정책이 추구되는데 이는 모든 정치세력을 소위 좌·우로 갈라세우는 보·혁논리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올림픽전후부터 꾸준히 거론되은 보수대연합의 구도는 사실상 여소야대라고 는 하나 한계를 지닌 야권을 더욱 민음직한 정권유지의 동반자로 세우고, 그리고도 의회민주주의실현이라는 눈가림식 명분과 함께 식민통치고착화에 걸림돌이되는 민족민주세력에 가하는 파쇼적탄압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3. 한국사회의 정치체계와 연구과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해방이후 남한사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으로 인해 성립된 통치체제는 80년대를 통해서도 또한 예속 군사파시즘의 형태로 일관되어 왔다.

이와같이 한국정치체계-정권의 소유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명이 사회성격의규명에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된다는데에서 그 중요함이 더해진다. 결국 80년대 한국사회성격을 설명하는데 그 정권의 계급적 본질과 기반을 찾는것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살펴본바 결론적으로 말해 한국정권은 미국의 분단의 고정화·영속화 추구전략에 의해 그 정치지배도구로서 본질을 규정받는 신식민주의적 대리통치체제인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이상 본 논문에서 살펴본 80년대 한국사회의 조명은 경제적 규정요인을 가능한 한 배제시킨채 단지 정치체계 측면에서의 고찰이었다. 물론 한 사회의 연구에 국가주권을 통한 정권의 소유문제가 결정적 요인으로 다루어지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또한 적지 않은 비중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

특히 80년대 남한사회는 친미적인 매판자본가와 군부 정권과의 긴밀한 연관성속에 전개되면서 단순한 대리통치형태가 아닌 독립된 형태로 보이기 위한 일정정도 인정되는 상대적자율성이 오히려 남한 민중탄압의 고도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후 추가될 것이며 본 글에대한 많은 비판 또한 가해지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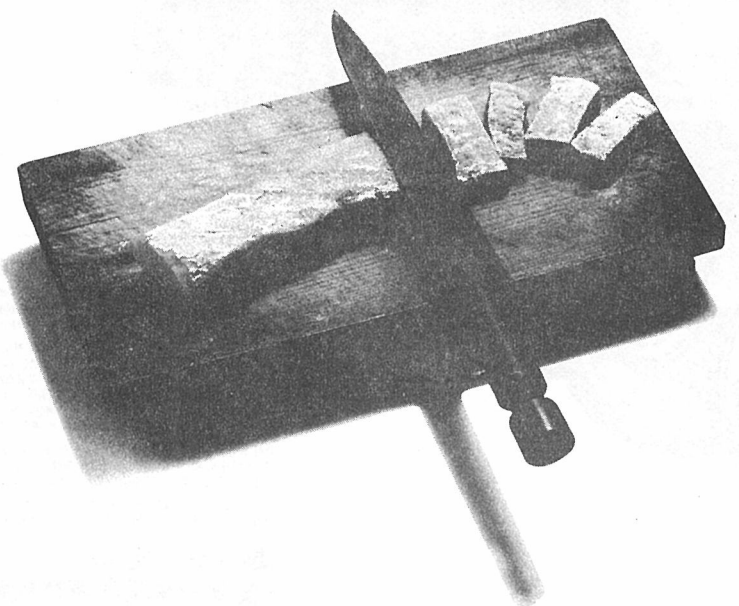
〈학술부〉

보수 - 혁신구도통한 야권회유·민족민주운동고립화가 현정권의이데올로기적 정치전술

일본의 패망과 함께 시작된 한국정치권력은 일제의 대체세력으로 등장한 미군정의 영향력과 관계속에서 규정된다. 정치적으로는 각종 군사조약·협약의 형태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원조경제로 이루어진 남한사회의 식민지적제권은 이후 자주성이 결여된 대리 정치권력 형성으로 귀

글싣는 차례

1. .80년대 남한사회 통사적고찰
2. 변화하는 주변정세와 남한사회
3-1. 남한정치권력의 통치전술 변화
3-2. 80년대 남한경제의 새로운 전개과정
4. (보론)80년대 남한사회 성격의 실체적 규명
5. 민족민주 운동의 성장과 조직화전망
6. .90년대를 향한 운동의 몇가지 전개
7. (보론)80년대 북한사회의 진개



평소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한석봉 교훈

자만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남겨준
그 유명한 한석봉의 일화!
방학을 뜻있게 보낼 사람일수록
이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너위와 싸우며 도서관에서
방학내내 책과 씨름했다고,
토플 혹은 어학 실력이 조금 늘었다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지맙시다.
잠시 방심하는 순간 내가 바로
현대판 한석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학원내의 정보정치 프락치의 실상

학원사찰, 가짜대학생·룸펜등을 이용한 반인륜적 행각

학생운동 분열과 불신을 획책하는 고단수의 정보전

홍 용 기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 회원〉

지난달 28일 국민대 전(前) 문과대학생회장 김정환군(23·국문·4)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사무실에서 양심선언문을 발표, 자신이 보안사 요원에 의해 8월9일 납치되어 학원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모두 4번에 걸쳐 학내동향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학가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있던 학원에 대한 정보사찰이 다시 한번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5공화국 당시 정보사찰의 주역이었던 국군보안사가 6공화국에 들어서 다시금 정보정치와 학원사찰의 일선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어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학원사찰문제는 노정권 출범과 함께 당국이 언론을 통해 또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부정해왔던 것인 만큼 지난 5월 부산 동아대에서 밝혀진 학내사찰의 전위초소인 경찰상황실(CP)의 존재와 함께 이번 김정환군 사건은 그간 학원자율화에 관련된 당국의 발표 일체가 허위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땅에 군부독재가 시작된 이래 온갖 명분으로 학원에 대한 정보공작이 줄곧 계속되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16이후 9개종합대학과 37개단과대학 그리고 각 지방대학 학내에까지 침투, 학원탄압을 위한 조직적 학원사찰의 본거지였던 YTP(Young Though Party), 그리고 박정희유신독재치하의 중앙정보부·경찰의 학원공작, 보안사가 중핵무진으로 칼을 휘둘렀던 전두환시대의 녹화사업과 학원프락치등… 이러한 맥을 이어받아 노태우의 6공화국에 들어서도 학원사찰은 의연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학원사찰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

학원사찰의 전초기지CP

지난 4월28일 하오4시, 부산 동아대생들은 교내집회를 갖고 가두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상황실(CP)을 덮쳐 학원사찰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달아나는 사복경찰중 한 명을 붙잡았다. 조사한 결과 밝혀진 신분은 국가안전기획부 부산분실 정보사무관 안동우였다. 대부분 작성차가 서부경찰서 정보과 학원반으로 되어있는 학원사찰관련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동아대현황」이라는 제목하에 동아대학생, 교수, 교직원 현황과 교수협의회, 교직원노조의 명단, 학생간부와 문제학생의 명단이 파악되어 있다. 이와함께 「동아대문제학생현황」, 즉 「블랙리스트」도 발견되었는데 문제학생들을 A급10명, B급16명, C급24명으로 분류하고 특별관리대상자까지 선정해 놓고 있다. 또한 경찰상황실(CP)요원들의 정보활동의 고도성을 짐작케 하는 자료인 「전망철」은 행사및 시위등에 대한 사전첩보를 「망원(정보원)」이나 「프락치」를 통해 입수, 기록하여 주간전망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총괄전망까지 되어있다. 발견자료중 「학원소요상황」은 매번의 집회·행사의 참석인원, 사회자, 연사, 연설내용등이 자세히 보고되어 있어 이들 정보경찰이 학내에 들어와 완벽한 첩보수집을 통해 보고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경찰상황실(CP)은 비단 부산 동아대뿐 아니라 전국의 각대학 부근에 존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광주직할시 국정감사에서 전남대앞 신안동 삼익아파트 2동 1403호에 전남대 담당경찰상황실(CP)이, 조선대앞 서석동 서석아파트 503호도 조선대경찰상황실(CP)로 83년말에 학내상주경찰력이 철수한 이후부터 사용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려대의 경우에도 정문앞의 「안개」라는 카페가, 서울대의 경우에는 정문에서 1~2백미터 떨어진 전경주둔파출소가 경찰상황실(CP)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학원내에 침투해 주도면밀하고 완벽한 정보사찰업무를 벌이고 있는 이른바 경찰상황실(CP)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가. 지난해 6월 인하대 「이의경 납치사건」을 분석해보면 경찰상황실(CP)이 하나의 커다란 첩보망임을 알 수 있다. 즉 경찰과 안기부요원으로 구성된 교내침투를 주임무로 한 특수망 7개와 협조망 7개등 기성정보망과 전경출신 복학생과 학교간부급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정보망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동아대경찰상황실(CP)에서 입수된 자료중 「근무일지」를 보면 「20:00경 서구 하단동 명동다방에서 망원00248호를 접촉, 첩보청취함」이라고 적혀있고 이외에도 많은 수의 정보원이 있음을 볼 수있다. 이상에 분때 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들 경찰상황실(CP)요원에 의해 교직원이나 학생들로 구성된 정보망이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과 정보기관의 유착

지난해 7월 서울대 본부농성중 학생들이 행정실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시위명, 시간장소, 참석인원, 사회자, 발언자, 발언내용, 행사의 성격등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보고철이 있었다.

87년 경북대와 인천대에서도 학교측과 정보기관의 밀착을 보여주는 문서와 메모, 경리장부가 다량 발견되었다. 87년 4월 경북대사태때 학생들이 총장실과 비서실등에서 입수한 문서들은 대학당국이 한해에 수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등의 명목으로 반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기관(안기부)과 관할 경찰서등의 학원담당책임자들로부터 협조나 지시형식의 통제를 심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해 10월 인천대 경리과에서 유출되어 나온 문서중 「86학년도 학생지도비사용계획안」에는 기관원정보활동비로 학군단장 1백20만원, 안기부 60만원, 송학서(보안사지청) 60만원, 동부서 2백40만원 등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 지급되었다.

프락치에 의한 정보공작

84년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2학기에 들어서 발생한 서울대 프락치사건은 정권의 학원자율화조치가 허구임을, 항시적으로 학원사찰이 교묘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중 가장 악랄하고 반인륜적인 행각이 바로 프락치를 통한 정보활동이다.

전국 각 대학에서 항상 문제가 되곤하는 프락치의 유형에는 먼저 가짜 대학생, 즉 재수생이나 룸펜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5월 서울의 모대학에서 학생을 가장, 교내써클에 가입하여 정보활동을 하다 적발된 프락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경찰에 전과나 범죄등으로 포무리를 잡혀 협박에 못이겨 첩보활동을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경찰 개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정보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찰은 캠퍼스내의 외판원등을 정보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며, 넓게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당국이나 일부교직원도 프락치에 포함될 수 있다. 교직원중에는(특히 학생처) 기관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악랄한 군사독재정권의 추악함의 극을 달리는 프락치활동의 유형은 이번 국민대생 김정환군과 같이 현역 학생이나 학생활동가를 회유·협박하여 프락치활동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중에는 협박을 못이겨 학내조직에서 활동하며 정보수집을 하다가 나중에는 충실한 파수견(犬)이 된 경우도 있다. 배정한(서울대 법대83학번)군의 경우가 그렇다. 86년 서울대 학생운동권에서 뛰어난 활동가였던 그는 경찰에 붙잡혀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후 정보활동을 하다 급기야는 확신범(?)으로 전향, 많은 동료들을 경찰에 팔아넘기고 지금은 안기부직원으로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의 프락치공작은 실로 단순정보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내부의 분열과 불신을 획책하는 고단수의 정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은 언제나 폭력과 감시에 의해서만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각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원사찰은 바로 현정권의 반민중성·반민주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진정한 학원자율화의 쟁취는 이러한 정권의 학원에 대한 감시와 간섭에 맞서 전대학인이 싸워 갈 때 가능한 것이다.

▲지난 8월28일 국민대생 김정환군은 KNCC에서 보안사로부터 프락치 역할을 강요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제공-국민대학보사〉

잘못 생각하신거야요.

운동권 속앓이

강 병 준
〈편집장〉

머칠전 일이다. 회대의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모선배의 공판을 보러 간적이 있다. 법정개시 시간은 오전10시인데 시국사범이라고 특별대우(?)를 해주어서 그런지 일반 사범과 구별, 랜 나중에 공판심리를 하였다.

오후 1시가 넘어서 시작된 심리는 형식적인 검사의 질문을 지나 그 선배의 법정최후진술로 이어졌다. 소위 「운동권」이라고 지칭되었던 그 선배는 감방안에서도 못한 말이 그리도 많은지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부터 현정권의 부도덕성까지 거의 30분이 넘게 진술을 하였다. 법정의 권위를 압도하는 선배의 그 당당한 모습은 소시민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나의 나약함을 질타하기에 충분했고 그 논리적인 언변은 부족한 나의 지식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렇게 법정최후진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재판장의 심리는 동시대의 또다른 한면을 보는 듯해 당혹감 아니, 분노까지 치밀게 하였다. 공소사실이나 구속사유와는 별반 연관이 없는 마치 너는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운동권학생임을 다알고 있으니 실토하라는 식의 거침없이 내뱉는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기가찰 따름이었다.

방청객의 야유를 받으면서도 계속된 이것아니면 저것, 혹아니면 백을 택하라는 너무나 틀에 박힌 질문들은 권력을 권자의 현실인식 수준과 어쩔수 없는 이사회 구조적 한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었다.

뭔가 껄껄한 마음으로 재판장을 나오면서 현정권을 비롯한 지배계층이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운동권」과 지배계층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는 거의 대중화되다 시피한 「운동권」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운동, 운동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등 운동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음합하고도 위협스러운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운동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않다. 그렇다고 운동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를 띤다는 것은 아니다. 자연계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 그 자체도 운동인이상 운동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말을 사회와 연결시켜 사용할때 우리는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수 있다. 즉, 운동은 사회모순에 직접하여 그 모순을 극복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변증법적 활동이다. 그러한 인간의 활동이 운동으로서 성립하려면 목적성(이념), 집단성(시위), 지속성(신념)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운동을 이렇게 정의할때, 그 대상이 되는 사회모순을 분석해내는 우리의 인식작업은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은 결코 낭만적일수 없으며 숱한 고민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대학내의 운동권집단은 소수이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처럼 자주듣는 말이 없다. 백발 양보해서 그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들이 악한 학생일 수 없다. 소수의 운동권이 보는 현실이 날카로운 것이어서 혹막의 배후를 꿰뚫는 것인 까닭에 다수의 학생들을 제우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좌경, 용공으로 몰아부치기에는 지배집단의 잘못이 더욱 크다.

그런 논리라면 학계에서 다루어지는 이념적 분석도 모두 좌경이 될 것이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출세의 가장 기본 수단이며 계층상승의 확실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대학에 들어왔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장미빛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 운동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만큼 현실인식의 고통은 값있는 일이며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있다.

흔히 대학사회를 운동권, 비운동권으로 이분화시키는 단선논리는 비운동권이라고 지칭되는 부류들의 현실인식에 대한 포기에서 비롯된다. 무관심과 철저한 배척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낳는다. 그들의 삶은 우물안 개구리이며 그들이 보는 세상은 바보상자인 텔레비전의 세상 이상이 되지 못한다.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는 소위 「운동권세력」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들 주장의 적합성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고자하는 스스로의 입지점에 대한 관점의 정당함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들이 기초하는 바가 곧 우리대학을 살찌우고 또 대학생 자신의 모습을 결정해 왔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주체로서 대학과 사회앞에, 역사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하겠다는 다짐이다.

대안없는 약속이행

가톨릭의 눈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안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마스터플랜에 약속한것을 지켜달라는것과 안했을때 확실한 이유와 대안을 밝혀 달라는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못한 우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면서 기다려주면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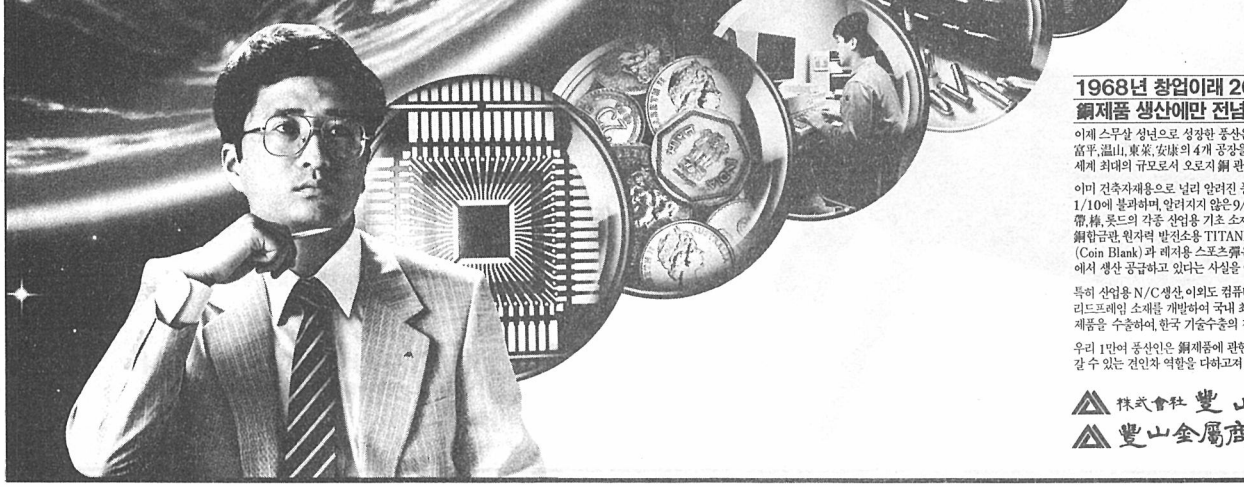
지난 9월7일(목) 용인캠퍼스 부총장실에서 학내제반문제를 가지고 학생측과 학교측의 3차면담이 있었다. 부총장, 교무처장등과 총학생회부회장, 각단대학생회장이 참여한 이번 모임은 시종 학교측이 학생측의 질문공세에 눌려 이끌려 가듯 진행되었다.

학생측이 마스터플랜에 약속한 사항들, 즉 배차회수증여, 도서관7월기공등을 학교측이 지키지않는 원인과 대응방안을 들으면 학교측은 「노력은 했다」, 「좀더 기다려봐라」,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약속불이행에 대한 사과해명보다는 학교측을 이해못해준다며 오히려 학생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상은 노력했다는 말과 이해해달라는 말로써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배차회수증여문제의 경우, 마장동 승차장에서 구의터미널로 이전한 후 기존의 차 대수만 가지고 왕복회수를 늘릴수 있음에도 배차회수는 증가하지 않아 가까운 거리에있는 강남학생들의 이용으로 늘어난 학생들을 원활하게 수송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학생측이 조목조목 질문을 하자 학교측은 「앞으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단기 발전계획을 준비중이니 너무 눈앞에 있는 일에 신경쓰지 말도록 하자」며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도 않고 언제이뤄질지도 모를 장단기 발전계획을 빌미로 배차회수증여문제를 무마 시키려하였다. 이러한 학교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교통문제뿐만이아닌 도서관건립과, 학생회활동지원비등 여러 약속사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용인캠퍼스에서 지고있는 교통문제해결은 하나인 마스터플랜상의 약속이었다. 학교의 진정한 발전은 하나하나의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학교측은 현재 가장시급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캠퍼스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배차회수증여, 도서관 7월기공과같은 약속사항을 꾸준히 이행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행할때 학생과 학교측간에 쌓여있는 불신은 깨어지고 상호 이해와 신뢰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임동식 기자〉

豐山

구리로 世界頂上에 挑戰하는 풍산



1968년 창업이래 20여년을
銅제품 생산에만 전념해온 풍산금속

이제 스무살 성년으로 성장한 풍산은 생산 25만톤, 매출액 5,300억으로 富平,溫山,東萊,安康의 4개 공장을 가지고 명실공히 伸銅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규모로서 오로지 銅 관련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이미 건축자재용으로 널리 알려진 풍산銅파이프는 전체 매출액의 1/10에 불과하며, 알려지지 않은 9/10의 제품으로는 銅 및 銅合金,板,帶,棒,롯드의 각종 산업용 기초 소재와 항공기용 부품소재 압수용 銅합금판, 원자력 발전소용 TITANIUM 판, 또 鑄貨의 소재인 素錢(Coin Blank)과 레저용 스포츠彈은 세계 최대량과 최고 품질로 풍산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산업용 N/C생산, 이외도 컴퓨터 산업의 꽃이라 불리우는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소재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독일에 그 제조 특허권 및 제품을 수출하여, 한국 기술수출의 장을 열게 되었읍니다.

우리 1만여 풍산인은 銅제품에 관한 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세계 제일로 갈 수 있는 전인자 역할을 다하고저 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株式會社 豐山
豐山金屬商事株式會社

휴전협정 평화협정으로의 국제법적고찰

김 성 수
〈법·법학3
국제관계연구회〉

남·북 서로 불법단체 규정, 통일은 「미(未)수복지」 회복의미

평화협정체결로 핵무기·미군철수등 실질관계 개선해야

Ⅰ. 들어가는 말

1945년 8월15일 한반도가 일본의 항복으로 인하여 해방을 맞이한 후 우리 한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채 미국과 소련의 2차대전 처리 과정속에서 한반도는 연합군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 (General order No.1)」에 의하여 38선을 경계로 허리잘리게 되었다.

그후 6·25라는 동족간의 비극을 겪게 되었고 그 길파로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또 다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재분단되었다. 남북은 그후 정치적인 상호접근을 몇차례 시도하여 접촉도 간간히 있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한체 분단 45년을 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남북간의 교류가 명분론과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서로간의 법적 정리가 완전히 해결, 정리되어 있지 못함에서 연유할 수 있다. 남북이 서로간의 법적정리를 하지못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국의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한갓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남북간의 법적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므로써 객관적 시각으로 현상태 남북관계를 조명함과 아울러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통일로의 한 과정의 방법으로서 「평화협정」에 관해 살펴고자 한다.

Ⅱ. 남북한의 법적관계

1. 휴전협정의 법적관계

남한과 16개국이 참전하고 북한과 중공이 참전했던 전쟁은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쌍방의 적대행위(군사적 적대행위)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남한은 휴전협정의 법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 휴전협정의 공식명칭과 서명자에서 알수 있듯이 남한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남한측은 휴전협정의 체결에 반대했고, 또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작전지휘권이양공한」에 의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한 상태였으므로 남한은 휴전협정에 당사자의 지위로써 서명할 수 없었다. 그런데 휴전협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휴전협정 서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는 오로지 「군사문제」에 관한 협정이며 「정치문제」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회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휴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명시된 것으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각국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 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15일까지 제네바(Geneva)에서, 국제연합측에서는 남한과 참전16개국 중 남아연방을 제외한 15개국이 공산측에서는 북한·중공 및 소련의 외상급들이 참석한 국제회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상호간에 정치적 타협을 볼 수 없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남한은 휴전협정상, 군사문제의 법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치문제의 당사자는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유엔군측의 법적당사자는 연합군 사령부가 아니라 국제연합이다.

이유인 즉 국제연합사령부는 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이며 또 안보회의 결의에 의하며 동사령부의 기관당사자인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임명은 미국에 위임되었으며 이에따라 미국은 국제연합의 대리인으로써 국제연합군 사령관을 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인 국제연합사령부가 아닌 바로 「국제연합」인 것이다. 이에 의하여 국제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연합」이 존속하는 한 당사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바로 「국제연합」자체이고 타방의 당사자는 북한과 중공이되는것이다.

2.남북한의 법적관계

남북한은 상호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특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국제법상 상호간의 지위는 애매하고 국내법상으로는 불법단체, 반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제법상, 남북간의 법적문제를 다루는 것은 평화협정체결, 불가침협상체결등의 남북간의 법적문제를 풀어가는데 기본적 문제이다. 현재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공식적인 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북한정권은 교전단체 또는 불법단체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국토의 분단은 국제법상 「분열」이나 「분리」도 아닌 북한지역의 불법점거만이 있을뿐이다. 따라서 통일은 오직 「미수복지」의 회복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체결이래남북의법적상태는 평화상태가 아니라 적대 행위의 단순한 정지이며 전시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스톤(J.Stone)과 같은 학자는 사실상 휴전협정을 전쟁상태의 종결로 보기도 한다.

Ⅲ. 남북한의 평화협정

1.남북간의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

먼저 현재 남북한간의 법적상태를 살펴보면,서로간에 전쟁상태에 있다. 남한이 북한을 교전단체, 불법단체, 또는 반도단체로 보고 있는 이상 인적·물적교류는 물론 실질적 관계개선등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법적인 전쟁상태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므로써 통일문제의 실익을 위해 평화협정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첫째,복잡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남북당사자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평화협정은 체결되어야 한다. 남한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되어있지 못함으로써 남북한의 법적당사자가 누구인가가 문제되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휴전협정을 폐기함으로써 이러한 당사자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둘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휴전의 경우 상대방에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교전자는 언제든지 적대행위를 개시하는 것이 국제법상 합법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위험한 남북한의 법적상태를 전환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휴전협정의 결함사항을 보충하기위한 평화협정체결이 요구된다. 현 휴전협정은 오로지 군사적문제에 한함으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이산가족의 재회, 해상자유무역의 설정등)을 평화협정으로 보충할 수 있다.

넷째 국제관계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는 법적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평화, 긴장완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공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휴전협정에의해 법적으로 전쟁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서명하였으므로)이와같은 적대관계를 종료하여 중공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제약없이 할 수 있으므로 지금보다 많은 실익을 볼 수 있다.

2.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체결되는 휴전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휴전협정의 당사자에는 남한이 제외되나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당연히 되는 것이다. 이는 휴전협정 제60항에서 국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게(to the government of the concerned on both sides)」, 「정치회담(political conference)」의 개최를 권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 수 있고 또 1953년 8월 28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하면 한국의 정치문제의 당사자는 국제연합국측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16개참가국」이며 공산측을 위하여 「북한, 중공과 소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남북한의 정치문제 당사자는 즉,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에는 남한이 포함된다. 북한이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를 「북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곡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평화협정 체결후에도 「유엔군 이름의 미군」만이 해체, 철수되고 남한에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계속 주둔된다면 저금과 별로 다르지 않는, 문서적 효과의 평화협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철수는 남북간의 군비축소문제, 핵무기 철거문제, 병력감축문제등이 함께 제기되므로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번째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국군에 대한 현재의 작전지휘권문제가 생긴다. 주한국제연합군이 해체 철수하게 되면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체결은 남북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앞서 설명하였다. 국제관계에서 신데땅뜨가 조성되는 지금의 국제환경속에서, 오직 한반도만이 이데올로기틀에서 냉전의 틀을 고수하여 서로간의 접촉과 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최대비극이다. 8·15가 진정한 한민족의 해방으로 승화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통일이 되는 날이 한민족의 진정한 해방이 되는 날로 되기 위해선 남북이 서로 통일에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남북한의 지금의 상태를 영구분단으로 몰고가는 것을 막고 민족의 통일성, 국가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내적·외적으로 이질화된 것이 결코 서로간에 통일방안이 없어서 오늘의 분단 45년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제 과거의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통일의 문제가 실효를 거두고, 이것이 민족의 가슴에,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에 관한 과감한 정치적 개방과 그에따른 법적인 문제들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인플레이션(Inflation)

소금상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으로만 알고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기업활동의 초과이윤 이외에도 물가상승을 조장한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을 획득하려한다.

여기에 임정한 임금속에서 물가의 상승은 길국 노동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되어, 상승폭과 임금사이의 차액이 자본가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제정적 이유에서 통화를 과잉공급시켜 재무자로서의 위기를 지가하락속에서 모면하려 한다. 이러한 실례는 6공화국 출범이래 올림픽을 치루면서 뛰고있는 물가에서, 이번 추석과 같은 매년 명절에 즈음하여 서민의 생필품가격이 폭등하는 것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폐의 장제통용력이 발휘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상승이라기보다는 자본가와 국가에 의해 치밀히 계획·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고침〉지난주 본란에 게재했던 「매카시즘」의 영자표기를 「McCarthyism」으로 바로 잡습니다.

외대논단

사람소맥

심 재 석

다산과 문학의 현실참여

우리사회에서 문학의 현실참여는 이제 타당성의 논의를 넘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앞에 오히려 순수한 정당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수탈하는 착취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민중의 삶을 솔직히 그려나가는 문학은, 또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자들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다. 한때 눈탑게도 오늘날 문익환목사나 고은시인과 같은 이들의 창작형태를 불건의 타락이 극에 이르던 조선말기 다산·정약용의 작품속에서 그 맥을 찾게된다.

다산이 삶을 누리다 간 18C 후반과 19C초는 조선왕조사회의 내적모순이 도처에서 드러난 시기였다. 그나마 조선사회를 이끌던 유교적 정치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매관매직등의 온갖 부정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에 지방관료들은 매관의 댓가를 벽성의 착취를 통해 구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의 감사와 수령을 「큰도둑」으로, 지방향리를 「곰주린 솔개」로 비유할 정도의 관리들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는 벽성의 모습을 다산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진정사 베푸는 것 원하지 않고/ 사재털어 구휼함도 달갑지 않네/ 관가의 돈궤짝 남이 볼까 쉬쉬하니/ 우리를 굶게한 건 이 때문이 아니더냐/ 관가 마굿간에 살찐 저 말은/ 진실로 우리들의 피와 살이네…(「곰주리는 벽성」중에서)」

한편 당시대는 왜란과 호란로 곤액을 당하였다 하여 제생식기를 자르는 일까지 있었다하니…. 이 또한 다산은 한 애닉의 입을 통한 작품으로 그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군인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법도 한일이나/ 애부터 남겨 놓고 가면 어찌하랴 이것이 있었다 하니…. 이 또한 다산은 한 애닉의 입을 통한 작품으로 그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군인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법도 한일이나/ 애부터 남겨 이라는 우리 역사상 전대미문의 총액을 자르는 일까지 있었다하니…. 이 또한 다산은 한 애닉의 입을 통한 작품으로 그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군인남편 못 돌아옴은 있을법도 한일이나/ 애부터 남겨 놓고 가면 어찌하랴 이것이 있었다

한가위 특집

숨겨진 지배논리 잊혀진 우리 문화

명절, 상업주의·정치무관심 조장
공동체적 명절문화 연구돼야

1. 우리의 명절은…

『서러워서 설, 추워서 추석』이라는 남도 속담이 있다. 아마 옛부터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기뻐해야할 명절도 서럽게 다가왔나 보다. 그러나 사실 명절 중에서도 추석의 의미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헤어져 있던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다.

우선 수확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농경사회에서는 으레껏 첫수확이 이루어질 즈음 추수감사의 축제를 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이날 햇곡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송편을 해 먹으며, 새 옷이나 입던 옷을 깨끗이 해서 추석빔으로 차려입고 성묘를 간다. 그리고 달이 떠오르면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며(달맞이)어촌지역에서는 이 날 배에다 기를 꽂고 배의 태평과 출어시의 풍어를 축원하기도 한다.

추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이 있는데, 우선 신라초기 조정에서 길쌈경례책으로 6부 부녀자를 둘로 나누어 7월 보름날부터 한달 동안 길쌈시합을 벌여 팔월 보름날 그 성과를 비겨 지는 편이 이기는 편에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가무를 베풀었다 한다. 또한 팔월 보름날에 관인들이 활쏘기를 겨루어 말과 베로써 상품을 내린다음 잔치와 풍악으로 즐겼다는 무예강려 행사의 일환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곧 여자의 길쌈, 남자의 무예라는 고대의 생존조건을 연마하고 즐기는 행사를 추석날 밤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원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속명절은 일과 놀이가 하나였음을 보여주며, 이날 노동력과 공동체성을 배가하는 놀이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추석날은 수확의 기쁨을 기리며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쉬고 노는 날이었다.(단 여자들,특히 며느리는 빼고)

요즈음도 시골에서는 추석이 되면 으레 『장기자랑』이 마을마다 벌어져 집떠난 사람들까지 들아와 마을 사람들과 신나게 논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또 래끼리모여 밤새워 놀게된다.

이와같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쉬고, 놀던 보름달 밤은 명절 추석이 그 진정한 의미를 점차 잃어가는 듯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명절 추석보다도 국적불명의 「발렌타인 데이」가 더 기다려지는 날이 아닐까.

옛부터 우리 명절은 안식일의 성격이 강하였다. 명절에는 모두 몸을 조심하고 쉬어야 한다고 하여 빨래마저도 삼가했다. 우리 속담에도 『게으른 여자가 정월 초하룻날 바느질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다. 사실 시키는 사람들은 명절에 굳이 쉴 필요가 없겠지만 일꾼들은 낮을 잠아 쉬지 않으면 쉬기가 어려웠다. 이런 예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동자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을 물으니 대분분이 「쉬는 날」이라고 답했다. 세계에서 최고로 긴 시간을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넉넉한 날로서의 추석」의 의미는 매우 소중하게 드러나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잘 쉬기 위해서는 잘 놀아야 한다. 옛날 추석에는 씨름, 줄다리기, 널뛰기, 활쏘기, 지신밟기, 다리밟기, 달맞이, 닭잡이, 풍금질등의 놀이를 마을 전체가 즐기면서 쉬고 놀았다. 이 놀이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몸을 많이 움직이며, 여럿에 어울려 함께하는 놀이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놀이를 통해 노동력이 배가되고 공동체성이 배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논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잊고 스트레스를 푸는것 이상의 의미 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추석때 이루어진 놀이는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긴장과 모순을 놀이를 통해 풀어내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 텅텅한 서울에 남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극장 매표소 앞에 줄을 서고, 아니면 방안에 모여 앉아 고스톱을 하거나 비디오나 텔레비젼에 온 몸을 맡겨버린다. 이러할 놀이는 단순해설적인 놀이, 한탕주의적 놀이, 들러리적 놀이, 환상적인 놀이들이다.

이와같이 우리 민속놀이의 건강성과 생산성이 점점 잊혀져가게 된 것은 일제시대 부터예다. 일제시대에는 한민족을 단결시키고 자각시키는 힘을 가진 각종 민속놀이 특히 동제싸움, 편싸움과 같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고 대규모적인 것은 소위 집회금지법등을 동원하여 모두 금지, 중단시켰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미군들을 통해 물밀듯이 들어온 서구의 개인적이고 퇴폐적인 놀이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서구지향적 사고를 조장하였다. 또한 서구의 퇴폐적인 놀이는 외국의 상업주의와 소수 국내 매판자본가의 상업주의와 영합하여 더욱 확산되고, 일부 권력자들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텔레비젼, 라디오 등을 통해 놀이를 조작하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소비향락적 놀이문화가 진정한 쉼을 위한 놀이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특히 추석날 가족이 모여하는 놀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2. 추석 이날에…

추석의 또하나의 큰 의미는 떨어져 있던 사람끼리의 만남이다. 제사를 통해 산자와 죽은자가 만나고, 고마운 은인들이나 찾아뵈야 할 상사들을 만나게되는 날이다.

이들이 만나러 오가는 길에는 으레 묵직한 선물보따리들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다. 요즘처럼 돈을 쳐바르지 않으면 결과음을 느끼지 못하는 『즐거운 불감증』, 「소비와 소모를 미덕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심각한 요즘, 그래서 12만원짜리 스타킹마저도 등장하고 있는 세태, 추석은 고급장사꾼들이 한 몫 버는 날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신문에는 각 백화점마다 추석을 맞이하여 14만원짜리 넥타이, 1백만원짜리 지갑-혁대 세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디자인이나 색상보다는 값이 비싼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1989.8.25일자 조선일보)

또한 추석은 북녘에 친지를 두고온 사람들에게 더욱 서러운 날이며, 교도소에 갇혀있는 양심수의 가족들이나 수배자의 가족들에겐 「민추석」이 될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우리겨레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원하게 되나 보다.

3. 오늘 추석에 우리모두…

일반적으로 명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회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한다. 사실 그렇담 매번 추석에 따라 일어나는 민족 대이동, 그 대이동을 위한 귀성열차표 예매행렬,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의 소비주의적 명절 상품판매열기, 명절날 노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부엌에서 일해야 하는 여성들, 북녘에 친지를 두고온 사람들의 아픔,…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소비주의풍조, 농촌문제, 성차별 문제, 분단의 모순들을 첨예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올 추석은 새로운 명절문화의 창조를 위해 필가를 시도해보자. 올 추석에는 알찬 수확의 기쁨과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몇가지 준비를 해보자.

첫째, 추석날 가족끼리 이웃끼리 할 수 있는 공동체 놀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특히 추석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독립운동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6·25때의 진실한 이야기, 등을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우리 조상들의 용기와 지혜를 이어 받고, 선조들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가족끼리 달맞이를 하면서 서로의 기원을 확인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

둘째, 추석을 맞이하여 만나야 할 분들을 기억해보자. 그리고 소비적이지 않으면서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족끼리 상의해보자.

셋째, 이웃사람들(노동자, 농민, 빈민)은 추석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넷째, 명절날 여성들과 남성들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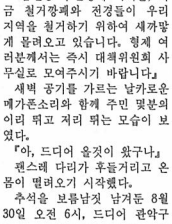
다섯째, 북녘이 고향인 이웃을 생각하며 분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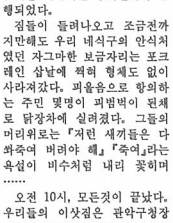
정 현 주
(민속문화연구가)

명절이 가까와오면 무언가 해야할것같은 막연한 의무감(?)이 들면서도 막상 할일이라곤 텔레비젼이나 지키는 일밖엔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나마 국적도 모를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주기적으로 들뜨게 하고, 막상 그날이면 사람의 정으로 뿌듯한 날이 아닌 돈만이 사람을 뿌듯하게 해주는 날이 되버린 명절들이 이게 우리에게 무슨의미인가. 올해 8월15일이 다가오니 브라운관에선 잔광지를 찾는 자가용으로 북적인 고속도로를 비추고, 미친듯이 쏟아붓는 광고엔 「올추석엔 ××위스키선물셋트」, 「감사의 마음은 △△를으로 전하세요」하며 가진자만이 명절을 즐기라고 외치고 있다.

「어떤엔 닷새나 놀아요」하며 굉장한 은총이라도 입은듯 부끄럽게 웃는 여동, 「차례상차리기가 옛날같지 않아서…」하며 말끝을 흐리는 아주머니의 인터뷰를 바라보며 우리의 명절속에는 본한 카페라조형반를 환하지 않는 그어떤 숨겨진 그늘이 있음이 느껴지는건 무슨 이유인지. 「1백48만원짜리 회계 수입선물이 불티난다」는 어느 일간지의 기사를 보며 문득 명절이면 차례상에 위해 황해도고향마을을 애기한다던 대전구의 아버지 이야기나, 명절때가 명절인데도 감옥에서 밤이나 새워로 먹을지 모를 대학선배가 떠오르는 건 또 무슨 이유일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할 한가위.
그러나 우리주위에는 이 명절이 더욱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 수재민, 철거민, 해직교사, 구속자의 가족…. 본보에서는 독자여러분이 다시금 이들의 삶을 생각할수 있도록 「추석을 잃어버린 사람들」몇분의 편지글과 수기를 싣습니다.
「함께 맞이하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전 미 숙
〈남현동 철거민〉

『비상!』

『남현동 주민형제 여러분, 지금 철거깡패와 전경들이 우리 지역을 철거하기 위하여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책위원회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벽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메가폰소리와 함께 주민 몇분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이 보였다.

『아,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팬스레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추석을 보름남짓 남겨둔 8월 30일 오전 6시, 드디어 관악구청의 지휘아래 각 동당 1세대 기준으로 분산되어 실려나가고 주민들은 지역외곽으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M-16과 K-2로 무장한 군인들이 마을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는 늠름하게(?)경계근무에 들어갔다.

작전성공!

그렇다. 지들은 군, 경, 관의 일사불란한 합동작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것이다. 단 18세대를 철거하기 위해 무려2천여명이나 동원된 합동철거작전에서……

오후부터 마을 외곽쪽 공터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천막을 치기 시작했다. 이른바 「철새공동체」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차라리 분노와 슬픔을 넘어 눈물조차 말라버린 열흘간의 비참함. 추석은 내일 모레인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잃은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수 없다. 철거현장에 군인들이 직접 동원되어 철조망을 치고 M-16과 K-2를 들고 경비를 서면서 주민들을 위협하는 이땅의 현실! 전투경찰의 보호아래 구청에서 고용한 철거깡패들이 주민들을 무차비하게 구타하는 보통아닌 보통사람들의 보통시대!

과연 노태우란 인간이 「집」의 의미를 알고나 있을런지……

그래 우리는 삐빠지게 일해왔다. 그러나 남는것은 언제나 한평반 설운 보금자리와 천근의 무게를 짓누르는 「빚」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평반 설운 보금자리조차도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철저히 파괴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빈민의 한」을 푸른하늘에 핏빛으로 물들여야 저들은 속시원해 할것인가?

철거되던날, 학교에 가면서 울부짖던 막내놈의 칼라진 목소리가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는다. 『엄마, 내가 학교에 갔다와서 만약 우리집이 철거돼 있으면 저들들을 다 죽여 버릴거야』 이 아이에게 장차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빈민의 한? 빈곤의 대물림? 아이야, 엄마는 싸울것이다. 머리가 터지고 뼈가 부서져 걸레조각 몸뚱이로 땅바닥위에 피를 토하며 쓰러질지라도 이 엄마는 끝까지 저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만은 「좋은세상」 「참세상」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기를 포기한적이 없고 인간으로 살았다」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참인간세상」을 물려줄 것이다.

아이야 그날이 꼭 오겠지?

압제의 여울건너 춤사위로 오겠지? 파아란 햇살로 살아 오겠지? 그래, 우리같은 무지랭이들도 인간답게 살수있는 그날은 꼭 올거야. 그때까지는 설운 몸짓으로 싸워야겠지. 그렇지?

침묵의 교단을딛고

도 전 적
〈전 동북고 교사〉

장선생님, 그리고 보고픈 여러 선생님께.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도 가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그림자처럼 소리없이 우리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칠목과 굴중의 교단 생활을 딛고서 살아 숨쉬는 교육, 참교육을 부르짖다 서슬푸른 칼날에 목이 잘린 지회들은 오늘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사랑스런 제자들과 동료들을 향한 그리움에 가슴 뜯으며 아직도 못다한 일때문에 잠못이루다 새벽을 맞곤 합니다.

차마 상상할 수 없을만큼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무도덕한 권력의 실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신뢰마저도 저버리고 싶은 유혹에 끊임없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신뢰가 담뿍 담긴 제자들의 박수 갈채, 격려전화 및 편지, 동료선생님들의 성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먼 고장 사람들로부터의 격려전보, 자녀들에 대한 참교육에 목말라하는 학부모들과의 뜨거운 만남, 수십년만에 걸려온 고향친구, 군대동기들로부터의 격려전화 등으로 그러한 유혹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땅의 역사적 진실과 시대적 양심을 왜곡하고 짓밟으려는 불의 앞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굳은 신념을, 마침내 정의는 승리하며 진리가 우리들 자유케한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누가 아무리 참교육을 모함한다하여도 아이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은 우리들의 이름과 참교육의 씨앗은 절대로 지울수 없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망나니의 칼날에 수천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지는 동안 의병이 되고자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서, 선현이 낭자한 우리의 주검을 옆에 두고서 승리의 술잔치를 벌였다고 해서, 시체를 방석 삼아 타고 앉아 새 자리를 즐긴다하여 그들을 환망하거나 맞하지 않으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의를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없음을 넘어 죄악」이라는 교장심월 복도 벽에 걸린 액자의 가르침을 오가며 곧수에 새겨지게 비록 참스승의 길, 참교육의 길이 고

"북한에는 어떤명절이…"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명절 이뤄져야

북한, 전통명절을 오늘에 맞게 비판적계승

주 강 현
〈경희대 교수〉

1. 북한사회에서의 명절의 정의

『우리는 민족문화 유산을 평가하고 처리하는 데서 옛날 것은 다 글렀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덤대고 업수이 여기는 경향도 반대하여야 하며 민족적인 것을 살린다고 하면서 옛것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거나 현대판으로 만드는 경향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북한사회에서 바라보는 명절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있다. 즉 전통적 명절은 그 자체를 그대로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민간명절행사에서의 부정적 측면을 사회가 바뀐 오늘에까지 연이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이다. 동시에 과거명절행사를 모조리 청산하는 방향은 민족허무주의이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즉, 민간전통 명절의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것을 잘 가려내어 이를 오늘의 근로대중들 구미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회주의사회에 부합되고, 공산주의적 인간형에 요구되는 새로운 명절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를 또다른 차원에서의 명절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전통적 명절

남한의 전통적명절은 대개 춘하추동 절기마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정초의 명절로 설날과 보름을 위시해 한식, 3월 삼짓날,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백중, 8월 추석, 10월 상달, 11월 동지등을 큰 명절로 꼽아왔다. 이외에도 각종 절기들, 가령 입춘날의 봄맞이 의례와 같이 농경세시풍습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의 많은 전통적 명절들은 사라졌거나 축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민족고유의 설날이 지금까지 일부 농촌지역에서만 쇠어왔을 뿐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어오지 못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유한다고 파악된다.

첫째로, 민간명절에 매개돼있는 비과학적이고 낙후한 측면들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낭비적 측면을 든다. 없는 살림살이에 명절 쇠는것이 큰 낭비로 작용함을 지적한다. 세째는, 과거 명절이 시대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뒤떨어지고 비문화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사회의 전통적 명절이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식으로 남한이 북한을 악선전 내지는 사실을 은폐시켜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긍정적 평가를 살펴보자.

첫째, 과거의 명절행사들이 봉건시기의 기본생신부문의 담당자였던 농민들의 생산열의를 일정하게 고무하는 계기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필요하고 의의있는 것이었다는 측면이다. 둘째로, 전통적인 미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가지 예는 오늘의 북한민중들의 생활을 잘 알게 하는 작은 본보기일 것이다.

그 하나는, 전통명절과 관련해서 북한민중들의 의식 속에는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떠받듬이 이면 면에서는 남한사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가정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살아있고,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이웃간에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려는 풍습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매우 아름다운 예절이라는 점이다. 세째는, 명절에는 건전한 놀이와 오락이 많았으며 특색있는 철음식이 적지않으므로서 인민들의 체력향상에 좋았으며,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는 계기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긍·부정 두가지 평가를 잘 살펴보는 데서 북한사회의 전통명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가지 예는 오늘의 북한민중들의 생활을 잘 알게 하는 작은 본보기일 것이다.

그 하나는, 전통명절과 관련해서 북한민중들의 의식 속에는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떠받듬이 이면 면에서는 남한사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가정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살아있고,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민간명절에 매개되있는 비과학적이고 낙후한 측면들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낭비적 측면을 든다. 없는 살림살이에 명절 쇠는것이 큰 낭비로 작용함을 지적한다. 세째는, 과거 명절이 시대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뒤떨어지고 비문화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통적인 미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가지 예는 오늘의 북한민중들의 생활을 잘 알게 하는 작은 본보기일 것이다.

그 하나는, 전통명절과 관련해서 북한민중들의 의식 속에는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떠받듬이 이면 면에서는 남한사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가정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살아있고,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민간명절에 매개되있는 비과학적이고 낙후한 측면들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낭비적 측면을 든다. 없는 살림살이에 명절 쇠는것이 큰 낭비로 작용함을 지적한다. 세째는, 과거 명절이 시대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뒤떨어지고 비문화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통적인 미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가지 예는 오늘의 북한민중들의 생활을 잘 알게 하는 작은 본보기일 것이다.

그 하나는, 전통명절과 관련해서 북한민중들의 의식 속에는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떠받듬이 이면 면에서는 남한사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가정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살아있고,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민간명절에 매개되있는 비과학적이고 낙후한 측면들이 인민들의 건전한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므로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낭비적 측면을 든다. 없는 살림살이에 명절 쇠는것이 큰 낭비로 작용함을 지적한다. 세째는, 과거 명절이 시대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뒤떨어지고 비문화적 측면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통적인 미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두가지 예는 오늘의 북한민중들의 생활을 잘 알게 하는 작은 본보기일 것이다.

그 하나는, 전통명절과 관련해서 북한민중들의 의식 속에는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존경과 떠받듬이 이면 면에서는 남한사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가정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살아있고, 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가상꽁트

꿈먹고 물마시고

은 종 복〈동양·중국어4〉

평양외국어대학이다. 박진노는 흥분했다. 사진에서만 보던 학년말을 맞았으니. 교문을 들어서니 상큼한 냄새가 난다. 최루가스에 찌들은 남녘의 대학가와는 다르게 가로수가 제멋대로 자란 대학교정은 푸르기만하다.

그가 평양에 올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버지 힘이다. 아버지는 군의 장성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마다 최선봉에서 충성을 바쳤다. 물론 총, 칼로 전두 지휘를 했다. 5·16, 5·18, 6·29등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박진노가 다니는 대학에서 시위가 있을때마다 자신의 아버지를 매국노다, 미제의 앞잡이다라고 외치지만 개의치않는다. 그들은 아버지 말대로 낭만적 환상주의에 빠졌는 지도 모른다. 아무튼 박진노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이번 추석성묘단에 끼게 되었다. 그는 이번 성묘단 중에서 유일한 학생이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그의 출신성분을 알고 있는 대개의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북녘의 땅값을 점치려는 복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부당성을 확인하려는 새마을육성회 어머니단, 정의 구현전국사제단의 정치성을 폭로하려는 평신도협의회 간부들, 북녘의 생활상을 그릴 문인협회고문단. 이들 중에서 북녘이 고향인 사람들이 뽑혀서 가게된 것이다.

박진노는 북녘에 친지가 있어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추석성묘기간에 평양외국어대학에서 모의 UN총회가 있기에 남녘의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간 것이다. 그는 각 나라 대표들이 연설을 하고있는 동안 머리속으로 자신이 연설할 내용을 더듬었다. 그것은 안기부에서 이미 작성한 원고로써,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그가 연설을 끝내고 내려오자 이곳저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박진노는 생각과는 달리 북녘의 학생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연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때, 검정치마에 흰저고리를 입은 학생이 얼음보숭이라고 하면서 핀가를 주었다. 얼음보숭이는 시원스크림이었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같은 동포끼리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않으면서 영어로 연설을 했으니 말이다.

그는 일주일동안 북녘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북녘에 가서 직접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남녘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게 없었다. 거리에 차들이 적다는 것과 옷들이 다양하게않다는 것들을 제외하면 그들은 분명한 우리의 동포임에 틀림이 없었다. 박진노는 자신이 연설할때와는 다르게 북녘의 동포들이 자신을 뜨겁게 보듬어주는 것을 느끼고는 눈시울을 적셔기도 했다. 일주일의 기간이 꿈처럼 흘러갔다.

박진노가 판문점을 통과하려할 때, 평양외국어대학의 학생대표라는 사람이 선물을 주었다. 손수건이었다. 거기에는 백두산 천지가 그려져있고 그위에 조국은 하나다라는 글씨가 살아움직이듯이 쓰여있었다. 그때서야 박진노는 가슴속에 응어리진 것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두손을 꼭 마주잡고 잠시 기도하듯이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직은 북녘땅이테도 그 가을하늘에 너무나 푸르렀다. 잠시 후 그 학생대표와 헙있게 포옹하고는 작별을 하였다. 손수건을 잘 접어서 가슴 깊숙히 간직했다.

『야 임마, 조국이 어쩌고 어쩌? 이 손수건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어. 니 애비가 줌 똑똑해서 보내줬더니, 고작 빨갱이 물이나 먹고와, 이 자식 맛좀 봐야겠구만…』

그가 북녘에 다녀와서 실상을 같은 학교 학우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더니 대뜸 기관원들이 그를 잡아간 것이다. 조국은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이 북녘을 이롭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

박진노는 욕조가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의 몸은 거꾸로 세워졌고 이내 목이 물에 잠겼다. 숨이 목울대를 들락날락했다. 그러나 물을 들이키면서도 자신을 마뜻하게 대해주던 북녘의 동포들이 아른 거렸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던 선배들의 모습도 아른거렸다. 조국이 하나가 아니면 들이란 말인가. 남녘과 북녘. 아니면 남녘과 미국.

물맛이 여떻냐는 말이 귀에서 맴돌때, 박진노는 다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음보숭이라고 하면서 살포시 자신의 손에 쥐어주던 북녘의 여학생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검인」이 찍힌 편지

◇구속된 송훈군(동문·마인어4) 동생의 편지

송 욱
〈서울대 섬유공학과·1〉

형님께.

요 며칠전 2차 공판 때 다녀오고, 추석을 얼마안남긴 지금 한 장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름 내 그 안이 너무 더워 속옷바람으로 지냈다하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스러운것 외에는 표면상 크게 드러나는 일이 없는 듯합니다.

갑자기 지옥 같았던 지난 몇개월이 생각납니다. 어느날 밤 늦게 집에 오니 땅치로 머릴 때려맞은 듯한 느낌으로 다가온 형의 구속 소식, 그후 경찰서를 오가던 일, 어머님 안심시켜드리는 일, 구치소로 이감…. 결코 생각하고 싶지않은 일이기도 한데 서럽도록 다시 기억나서 생생히 살아나는건 무슨 까닭인지….

그후 몇장의 편지 속에서 형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바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그 모든 말을 단지 조그만종이 한장에 압뒤로 가득가득 메꾸는 것을 보면, 또 선명하게 찍혀진 「검인」도장을 보면….

하지만, 형은 그 모든 편지속에서 어땅의 주인된 모습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현하고 어머님께 말씀하시려했고 자칫 이땅을 외면한채 나 자신에게만 착실한(?) 인간이 될뿐만 아니라 일깨워 주었습니다.

형의 구속이후 그 이전까지 단지 피상적으로생각되던 많은 민족해방, 민중 등등의 말이 바로 내앞에 엄습해왔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름에 다소 부담스럽기는 했으나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꿋꿋한 형의 태도속에는 그 고귀한 말들이 버팀목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고 나서야 내게 더이상 없어지지 않을 그런 어떤 것으로 단어들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형 면회 갈적 생각이납니다. 2시간 이상을 기다리고서 허락된 5분. 그 때마다 형의 옷는 모습이 누가 누구를 면회하러 왔는지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것은 형에게 쥐해지는 모든 사법적 처리들이었습니다. 1차, 2차 공판때 형에게 필문하던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더 나오길 바라는지. 그들은 누구를 위한 충성을 하고 있는지. 새삼스레 참 교육의 필요성이 판·검사에게서도 느껴지더군요.

2차 공판이 있던날. 형과 같은 건물에 있었다던 사람이 찾아왔었습니다. 형에 대한 몇 가지 얘기와 함께, 형의 그작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또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람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그 곳(구치소) 사람들을 생각하면 괜히 씁쓸해집니다.

며칠 안남은 추석. 형님과 같이 지내지 못함것 같군요. 이 시대에는 우리 가정과 같은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형의 말대로 이시대가 부정의 시대이기 때문이겠죠. 지난번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님이 남으로 오실적에 형이 내게 보낸 편지가 기억납니다. 현시대 민족통일의 염원을 절실히 표현하였다고, 또한 엄청난 쇄거로서 무척 기뻐했었지요. 우리의 앞에 성큼 다가선 통일.

내 앞에서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깨어짐을 느낍니다.

---

4. 결론에 대신하여

남북이 갈라져 살아온지 어언 45년여 세월이 흘렀다. 북은 북대로 사회주의적 명절이 자리를 잡았고, 남은 남대로 자본주의에 부합되는 명절들이 자리를 잡았다. 각기의 처지가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의미의 명절도 많은 변천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은 있다고 본다. 한국민족은 으레 명절날만이라도 헤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붓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추석날 많은 귀향인폐가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장사진을치는 것도, 조상에 대한 차례지내기와 벌초도 모두 새로운 만남의 자리였던 것이다.

수많은 이산가족 뿐만아니라, 많은 이들이 조상의 묘지조차 못찾아가 보고 있는 분단의 현실…, 고향으로 가는 기차는 휴전선에 녹슨 채 누워있고 한민족 한핏줄이 명절날 조차 얼굴을 못보고, 잘못 만나면 국가보안법에다가 간첩이라고 하는 세상. 이제, 조상전래의 명절을 상호간에 뜻깊게 되새겨보고 환전한 만남—통일을 이루는—을 그 누구나 준비해야 할 것이다.

SAMSUNG Electronics

전자제품은 삼성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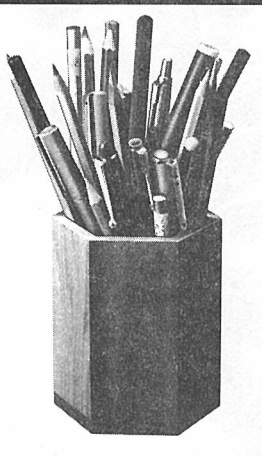
타자교육 및 초보자 연습을 위한 면(Fabric)리본과 수정리본도 있습니다.

쓰는사람만 즐거운 - 필기구

읽는사람도 즐거운 -

삼성 전자타자기 하이테치

개성이 돋보이는 필기구,
그러나 아무리 개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읽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
서류, 리포트는 예쁜 글씨로 편리하게!
삼성하이테치 전자타자기는 문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총망라되어 있어
서류, 리포트 작성에 더욱 편리합니다.
이제 서류, 리포트는 삼성하이테치로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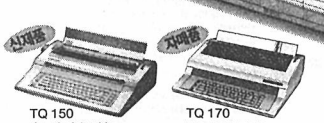
삼성하이테치 TQ-120의 사양
- 타자방식 : 데이지 휠 방식
- SPOKE수 : 본용-100개/프린트 휠 한글·영문-각 100개/프린트 휠
- 타자속도 : 10CPS
- 용지폭 : 12.5인치
- 타자폭 : 10인치
- 기억장 메모리 : 120개 키
- 삭은글씨 인치기능
- 자동밑줄긋기 기능
- 타자강도 : 2단
- 권장소비자가격 : W 290,000(V.A.T별도)

휴대에 편리한 예쁜 포터블백을 드립니다.

삼성하이테치의 놀라운 기능

흴교환없이도 한글·영문이 척척 —
삼성 하이테치는 휠교환없이 한글과 영문을 함께 타이핑할 수 있는 혼용기능과, 영문·한글을 따로 치고 싶을 경우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골라서 타이핑할 수 있는 겸용기능도 있어 여러가지 글씨를 구사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타자기입니다.

완벽한 수정기능으로 초보자도 손쉽게 —
오타가 나오면 수정테프로 입힘이 지워야하는 불편은 이제그만. 삼성하이테치는 잘못쳐진 오자는 물론 잘못된 줄 전체를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Line수정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사용이 간편합니다. 특히 한글오자도 자동으로 수정해주기 때문에 수정의 번거로움이 전혀없는 첨단기능의 전자타자기입니다.



TQ 150
- 한글·영문혼용/겸용
- 용지폭 14.2인치, 타자속도 16CPS
- 한글·영문자동 수정화
- 권장소비자가격 : W 495,000(V. A. T. 별도)

TQ 170
- 한글·영문혼용/겸용
- 용지폭 17인치, 타자속도 16CPS
- BOLD FACE 및 Auto under line 기능 의
- 권장소비자가격 : W 725,000(V. A. T. 별도)

제품문의 559-4670~3

■정보기기 사업본부·OA영업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3 노바B/D 3층
■삼성전자상 ●시청앞전시장 : TEL:757-9100 ●무역센터전시장 : TEL:551-5671 ●영 등 전 시 장 : TEL:546-0089 ●시경전시장 : TEL:777-1287 ●청량리전시장 : TEL:962-4800 ●유명백화점 문구코너

■삼성사무기기전문점
●서울 : (중 구)(주)서도실업 274-5800 (동대문구)밤포스사무기 962-4800 (강 남 구)한 일 상 사 548-7062~3 (구 로 구)삼 일 전 자 847-6277
삼성OA총판 273-0051 (강 남 구)중 앙 기 기 546-0089 (영등포구)(주)삼성애니 678-9827 우 성 사 무 기 897-4521
삼성사무기기 777-1287 삼 성 사 무 기 540-5477 제일OA시스템 780-7462

휴먼테크
삼성전자식타자기
삼성전자

예술보다 화려한(?) 고문

——보복고문당한 차일환씨 부인이 외대생에게 드리는 글

남 규 선
〈「민족해방 운동사」 그림 관련 구속된 차일환씨 부인〉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끌려간 내 남편 차일환씨를 14일만에야 변호인 접견시에 만날 수 있었다. 중부경찰서에서 안기부 수사관 3명이 배석한 살벌한 분위기에 질려 수사관과 부모님 앞에서는 시종일관 『괜찮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말라』고만 하다가 2개월된 아들 『새날』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던 남편은 수사관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고문사실을 털어놓았다. 무차별 구타와 정신분열증이 생기기 전까지 외상을 전혀 남기지 않는 『암연제우기』 고문을 가하여 『북의 지령을 받고 이 그림을 제작했다』 『북의 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안기부에서 당할 남편의 고통을 생각하니 한없이 가슴 아팠지만, 안기부의 민주세력에 대한 용공조작의 허위성을 알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나의 갈등에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했다. 내가 걱정했던대로 뻔뻔스러운 안기부는 고문사실폭로를 보도한 신문을 남편에게 들이대며 『어차피 고문수사로 낙인찍혔으니 진짜고문맛을 보여 주겠다』며 3일동안 온갖 야만적인 보복고문도 모자라서 『고문폭로한 당신 아내도 잡아왔다』며 협박까지 하였다한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홍성담씨는 연행 직후 연달아 3일간 밤샘조사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일곱차례 밤샘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온몸을 벌거벗긴 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무릎을 짓밟고 야전침대 각목으로 윗지붕할 일은 『북한을 방문한 기간은 2박3일이었다』라고 일단 허위자백한 사실을 놓고 담당수사관이 방문기간이 짧다며 5박6일로 하자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허위조서를 꾸몄다는 사실이다.

용공조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정권의 비열한 수사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8월 22일 23시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담당 검사실에 안기부 수사관 3명이 배석하여 공포

▲국회내무위원들이 고문치사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고문현장인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러 당시의 고문상황을 재현해보고 있다.

랗릇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여 용공조작한 내용은 홍성담씨가 88년 4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서독 개신교회에서 초청한 그림전시회 문제로 서독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돈을 받았고, 그림을 제작하여 평양축전에 참가하고 미술운동의 주도권을 쟁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북한을 방문하였다』라는 것이다. 또다른 구타를 당하며 『홍성담이 간첩이고 성낙형 목사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위 세사람이 안기부에 연행된 이후 『구속미술가 가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하기 위해 5~6시간씩 기다리며 면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한 안기부의 태도는 혹독한 고문 혼적을 은폐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치졸한 수작이었음이 자명하다.

이랗듯 비인간적·비도덕적인 안기부의 고문수사 전모를 확실하게 폭로하기 위해 홍성담씨는 오른쪽 무릎에 짓이겨진 상처와 귀바퀴에 남아 있는 고문상처를 증거로 법원에 고문증거보전신청을 내어 9월4일 서울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일련의 이번 공안정국의 간첩 당국의 용공조작 중지」를 요구하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9월8일 임수경씨 방북사건 관련 안기부 발표에서 홍성담씨를 간첩으로 매도하고 「민족해방운동사」 그림을 제작한 「민족미술운동연합회 건설준비위원회」를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등의 조작을 서슴지 않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붕건지배층에 대항한 민중의 싸움을 그린 갑오농민전쟁화가, 일제에 맞서 싸운 애국독립지사들의 항일투쟁을 그린 그림이,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 조국통일의 염원을 그린 그림이 이적표현물이라면 이땅의 진정한 예술을 갈망하는 미술가들이 서야할 땅은 과연 어디인가? 더욱이 가증스러운 일은 고문사실 보도에 대하여 『혈기에 못이겨 뺨 한대 정도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 외의 고문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울 수도 없다』는 허울좋은 공인의 내면에서 자행되는 공안정국의 「고문」은 간첩조작으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완파하여 흔들리는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 정권말기적 발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구속미술가의 한 어머니는 「민족미술을 하는 아들을 그렇게 말렸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땅이 바라는 일」이라고 전념하다가 안기부에 끌려가고 나니 내 아들이 왜 그렇게 했던가를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한다. 또한 「그렇게 말렸던 아들이 하려던 일을 내가 하게 됐다」며 「국가보안법철폐」라고 쓰여진 붉은 머리띠를 힘있게 두르신다.

내 아들 「새날」이를 낳았을 때, 「새날」이를 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기만 했던 남편에게 「가정」과 「일」을 함께 할 수 없느냐며 불평하던 나 역시도 왜 남편이 그럴 수 밖에 없었나를 이해하게 된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또 언젠가는 밝혀지는게 순리이다. 우리 「구속미술가」 가족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안기부의 「간첩조작」을 낱낱이 밝혀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안기부 해체」 투쟁의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지금은 저들이 권력의 비호아래, 하늘과 민중 무서운 줄 모르고 비겁하고 치졸한 것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당당해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목숨이 다한 정권의 최후발악이라 생각하기에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역사는 이러한 비도덕적 독재무리들의 처참한 종말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양양하고 승리는 예정 되어 있다.

명수당

박 정 근
〈철학과 교수〉

명수당의 검푸른 가슴 속으로 흰 구름이 흘러간다. 훼방이라도 하듯이 잔잔한 물결이 구름의 자태를 흐려놓으면 거기 또 다른 모습이 피어오른다.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너의 슬프고 고운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 얼굴이 자꾸 흐려지는 것은 파문(波紋)때문만은 아니다. 함께 저 파란 하늘에 환희의 웃음을 던져야 할 너를 파문에서나 찾고 있고나.

나는 너를 걱정하는 이 땅의 한 사람이다. 서로 알고 모름을 떠나 지금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단지 법이 쳐놓은 장벽만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너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더욱 절실하고나.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단지 법의 장벽뿐이라면, 그 장벽은 너와 내가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더욱 일깨워 주는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가족의 한 사람이 병원에 격리되었다고 해서 가족간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할 것이다.

수경아! 제발 오해는 하지마라. 나는 네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 단지 법의 장벽뿐이라면 내 마음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네모습이 자꾸 흐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 비록 구속의 아픔 때문에 핑핑 눈물을 쏟을지라도 그 눈물에는 뜨거움이, 바로 사랑의 나눔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법(法)이외의 또 다른 장벽을 느낌은 나야말로 몹쓸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비단 분단이란 장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뿌리란 사실조차 및 계만든 이리석기 짝이없는 「다툼」이란 전염병균을 이 땅에 뿌려놓은 것 같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분단의 장벽을 넘는 사랑을 나누지 못했음을 차치하더라도, 심지어는 동족상잔의 처절한 전쟁까지 치루어야 했고, 이제는 이 전염병이 골수에까지 퍼져 반쪽의 땅에서마저 금(道界)에 따라 갈라져 다투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나눔」이 사라지고 그 내신 「다툼」이 판을 치고 있다. 정계(政界)에서 다투고, 재계(財界)에서 다투고, 종교계(宗敎界)에서 다투고, 교육계에서도 다툰다. 「참교육」을 다투고, 전리를 다투고, 이익을 다투고, 정권을 다툰다. 「통일」을 이룩하겠다면서도 다투고, 갈라선다. 다툼의 방법을 놓고 다투고, 다툼의 선봉이 되려고 또 뒤질새라 다툰다. 확고부동한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눔을 위한 구분이 오히려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인과 남편을 구분함은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요, 스승과 제자를 구분함은 전리를 나누기 위함이요, 노동자와 사용자를 구분함은 이익을 나누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데, 나누어야 할 모든 것을 오히려 다투고 있다.

장벽속에 갇힌 수경이에게

나도 「남들이 왜 다투는지 모르겠어!」하며 다툼판에 끼어들어 『필 다툼게 있느냐!』며 다투고 있다. 내가 우리 사이에서 느끼는 또 다른 장벽은 바로 이 「다툼」의 어리석음이란다.

수경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놓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다시 다투지는 말자. 그러니, 이 글일랑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렴. 그리고, 가만히 명수당을 떠올리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사랑을 나누어 가짐, 장벽을 통해서!

단지 애국외대 학생이기때문에…

——정기 학생총회를 보고

『폐쇄 쟁퍼 폐쟁!』

쟁과리의 소리가 푸른 가을하늘 속으로 밝게 퍼져나갔다. 곧이어, 북과 장구의 어우러짐에 육중한 소리의 징이 한 몫을 한 길놀이가 정기 학생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정기 학생 총회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 되었는데 1부는 길놀이, 2부는 본 안건, 그리고 3부는 노래패의 공연순으로 진행되었다.

길놀이패의 뒤를 따라 학교를 한바퀴돌고 노천극장으로 왔을 때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둘씩 노천극장으로 모여 들었다. 그러는 동안 노천 극장 마당에서는 마지막으로 길놀이패들이 한바탕 놀고 있었다.

뛰기는 땀과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길놀이패의 움직임, 그에 맞게 어우러진 우리 것의 소리들이 너무나 정겹게 느껴졌다. 크고 작게 울리던 소리들이 가을하늘 속으로 아스라히 사라져 가며 1부길놀이는 그렇게 끝이 났다.

2부 전군식에는 부총학생회장 인준과 새로운 학생회 임원들의 소개, 그리고 여러 손님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곧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총학생회장 찬반 투표를 붉은 띠와 푸른 띠로 구분하였다. 찬성을 물을 때 어느 단대는 단체로 붉은 천 몇개를 들어서 통일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노천극장을 핏빛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어쨌든 새로 당선된 부총학생회장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축하와 격려의 꽃다발이 날아 왔고 휘기적이게도 본관의 옥상에서는 갑자기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오늘 전군식에 오랜만에 총학생회장이 등장해서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이 힘들어 보였지만 믿음직하였다. 이어 전대협 의장 임종석 어머님이 소개되어 나오셨다. 스탠드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더니 모두 기립박수로 어머님를 환영했다. 읽기 위해 들고 나오신 원고대로 비록 유창하게 말씀하시지는 못했으나,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못한 것들에 대한 분노와, 거기에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어머님으로서의 안타까움으로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뛰는 가슴 한구석이 잔잔하게 요동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역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학생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 말했다. 그것이 나에겐 조금 충격적이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학생회란 중고등학교때 처럼 당연하게 있어왔고, 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경들이 학교의 구석구석에 상주해 있던 시절, 그들을 내쫓고 자주적으로 만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제까지의 나의 삶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전체 학생의 1/5이라는 정족수도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스텐드가 눈에 띄었다. 우리들 모두 학교의 일에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왔다. 선배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룩된 학교와 학생회이고, 그 쌓인 땀방울만큼이나 힘들게 지탱되어 가고 있는 학교와 학생회라 생각하니 자그마한 우리학교가 너무도 정겨웠다.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함께 따스한 정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친구를, 그리고 학교전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지탱해 나가야 한다. 이유는 단지 애국 외대인이기 때문이다. 단지 외대인이라는 이유하나로.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맑은 소리들이 화음을 이루면서 가을하늘을 수놓았다.

때로는 발랄하게, 때로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들려오는 노래소리들이 날아서 학교의 구석구석에 내려 앉았다.

독자칼럼

김 지 연
〈사범·한교1〉

잠안재우기·알몸구타로 허위자백 강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하는 비인륜적 작태

로 무차별 구타하면서 귀를 뽑아버리겠다며 귀를 잡아당겨 귀의 출혈이 심해 여태껏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 한다. 고문의 방법은 이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책상위에 두손을 올린후 박박한 슬리퍼로 손등을 마구 때리는 동시에 양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계속해서 구타한 후 알몸으로 양손을 들고 2~3시간씩 서있게 한다든지, 한쪽다리와 양손을들고 장시간 서있게 하는등,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비열한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위기를 조성한 후 홍성담씨가 북한공작원으로부터 5천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강요했다. 이에 홍씨는 나중에 법정에 섰을때 고문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허위자백한 것을 부인하려는 기대감과 함께, 임회한 안기부 수사관의 고문이 여기서도 행해진다면 더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거라는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최초의 검사 심문 때부터 이와같은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함께 구속된 정하수씨도 「잠안재우기 고문」과 무차별 조작 회오리 바람은 이 그림을 소재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2명의 미술학생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여 구속자 8명, 수배자 10여명에 이르는 최근 들어 최대·최악의 미술탄압으로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은 결코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닌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한 반민중적·반민주적·반통일적 임무를 수행하는 악법임을 반증함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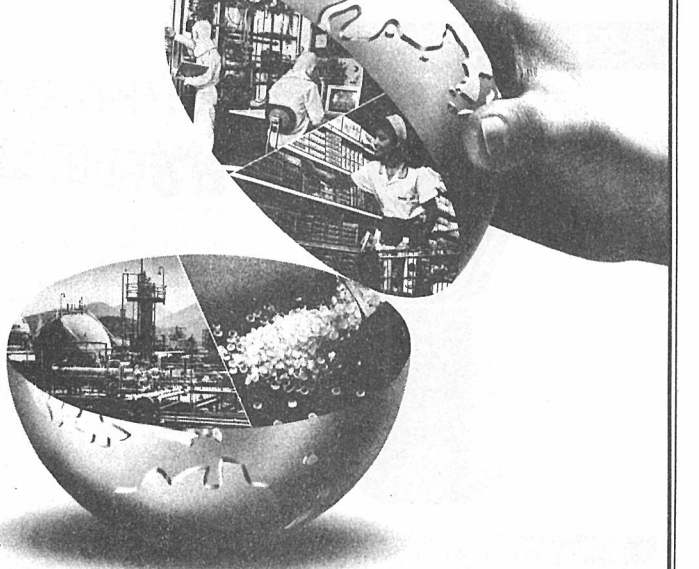
이에 우리 구속자 가족들은 9월 5일부터 「고문관계자 처벌, 도 안된다」며 「공무원 모독」운운하는 저들의 작태이다. 「박종철고문사건」때 저들의 발뺌은 어떠했는가? 온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늘도 땅도 울지 않았던가? 「권인숙성고문」 사건 때의 그들이 한말은 무엇이었던가? 「성(性)을 도구로 한 운동권 여대생」이라고 매도하던 비도덕성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이랗듯 「고문」의 비인간적인 전모는 만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자신도 말하는 「고문은 있어서도 안되며 있도 안된다」며 「고문사실 보도」에 대하여 『혈기에 못이겨 뺨 한대 정도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 외의 고문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신물질·신소재·신자원을 창조하는—럭키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미래산업까지 —
럭키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창조정신으로
중요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럭키 —
우리나라 화학공업을 선도하며, 끝없는 도전과 창조의지를 통해 "세계속의 종합화학회사"로 성장한 럭키 —
럭키는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는 물론 무공해농약, 동물성장촉진제, 인트페론, 부자용없는 제3세대 항생제개발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물질, 신소재, 신자원의 창조로 풍요한 미래생활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럭키는 사업분야를 「생활·산업부문」, 「화상부문」으로 2원화, 기업강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IDEAL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생활·산업부문
1947년 창업이래 「신뢰받 수 있는 럭키」의 이미지로 국내화학공업을 선도해온 럭키는 럭키치약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과화장품,건축 및 산업자재는 물론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제품, 유전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등 첨단제품 또한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상부문
합성수지 기초원료와 고도의 석유화학원료를 생산함으로써 국내화학공업을 선도함은 물론 엘지나이론 프라스틱 등의 신소재를 개발해온 럭키는 첨단설비를 갖춘 여천석유화학단지와 나주공장의 네트워크체제를 통해 국내화학공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럭키

우리생활

생활문화운동을 제안한다

이문-몸으로실천하는「외대사랑」

이 해 웅
〈서울학생복지위원회 생활문화부장〉

외대생은 스스로를 참 불쌍하게 여긴다. 어려운 눈치작전으로 대학이라고 들어와보니 교정은 강남의 고등학교만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육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도아니다. 이학계에서는 전공이 학점을 따기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졸업후 취직이 잘되는 편도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다른 사립대학에는 생수없이 많은 운동부하나 변변한 것이 없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조그만 학교가 데모하나는 잘한다.

『아아! 그러나, 어찌하랴! 혼자 공부라도 잘해서 취직이나 잘해야지.』 이것이 일반적인 외대인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된다. 사회로 나가서도 평생따라다닐 「외대」라는 꼬리표에 대해 성격이 안좋아 외대은 것을 자책감으로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방법은 한가지이다. 외대인이 합심해서 좋은 외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학교를 성형수술했듯이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듬어 고쳐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외대사랑운동」이다.

외대사랑운동의 핵심은 무엇보다 외대의식을 지니는 것이다. 외대의식이란 외대의 주인이 외대생 한명, 한명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다. 외대의 운명과 장래를 책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교수님들도 아니고 직원들도 아니고 오직 외대생들밖에 없다. 우리가 외대를 4년만 다니는 손님이 아니고 외대를 이끌어갈 주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대의식은 또한 외대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인이면 주인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외대사랑운동은 외대와 자신의 현모습에서 안주하려는 안일과 나태함을 버리는 운동이다.

외대사랑운동은 나아가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우리 생활문화전반을 민중주체의 자주민주문화로 이룩해내는 작업이다. 이 운동 캠퍼스의 주변은 카페와 맥주집, 추잡투성이이고, 우리는 어느새 이국의 생활습관에 젖어버렸다. 개강파티·동문회는 언제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행사로 전락했으며 미독점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롤라」를 거리낌없이 즐긴다. 영자가 박힌 옷을 아무 의식없이 입으며, 양담배를 자랑스럽게 피워대는 일, 생활속에, 인간관계속에 당연하게(?)스며든 군사적 권위주의들.

이러한 비주체적·군사적 관료문화, 반민족적 사대주의 문화, 소비적 자본주의 문화를 우리 외대에서 모두 뿌리뽑는 일이야말로 「외대 공동체」「외대사랑운동」의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외대사랑운동은 한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해서 그것이 어느날 순식간에 집단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미한 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저귀보는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미력하고 쓸데없는 일들로 보여질지 모르겠다.

허나 사랑의 속력과 힘은 무서운 것이다. 먼저 깨닫고 결의한 한사람의 주체적 모습이 내일은 열사람으로 그리고 모레는 백사람으로 늘어나 그것이 마침내 척박하고 협소한 이문동의 문화풍토를 개척해 나가는 거대한 뿌리로 번질것을 믿는다.

우리 애국외대인은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그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였음을 기억한다.

이제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것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아껴야하는 우리들의 일상적 생활속에서 우리들의 모나고 거칠고 오염되었던 모습을 걸러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 시작된 외대사랑운동이 머지않아 변화되고 개조되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외대사랑」운동이 우리의 현실속에서 체화되어 나타날때 우리의 「애국외대」는 참으로 자랑스런 대학으로 우뚝설 것이다.

이런 볼거리 어떻습니까

〈2〉민중의 모습을 사실대로

작은영화

「작은 영화」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생소하지만 않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문화매체이지만, 헐리웃이 양산해내는 고급상품들과 충무로 영화판에 길들여진 우리에게는 가히 밀접한 단어라고 하기 어려운 말이겠죠.

우리는 「록키」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러브스토리」를 통해 감동에 젖기도 했을 겁니다. 한국에 영화가 소개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소개된 영화의 70%이상이 미국의 것이었고 대부분의 헐리비전 영화 역시 동일한 현상임을 고려해 볼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한 「미국적 사고」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어릴적부터 우리가 보아온 미국영화는 초창기부터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독점자본으로서, 「아메리카의 꿈과 생활양식」을 선전하며 미국은 신천지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신이며 인간의 행복이 무조건 보장되는 곳으로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행해지는 「아메리카 넘버원」식의 사대주의 공세는 우리의 의식을 조종할뿐아니라 그들의 상품광고 수단으로써 작용하기도 합니다.

·영화는 대량생산되어 엄청난 파급력과 전달력을 지니고 현실을 재현시켜 현장감을 높여주고 반복적으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관람은 의식공동체 형성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심코 관람하는 영화는 그 관객들의 의식을 하나로 유도할뿐 아니라 그 영화의 내용에 의해 「환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영화들은 그내용이나 유형이 정부 통제하에 규제되어 어쩌면 잘못된, 대중을 우매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주입도구로 이용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근래 영화계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UIP라는 괴물을 내세워 문화적·경제적 침탈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영화계는 침몰직전에 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 영화를 민중지향적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작은 영화」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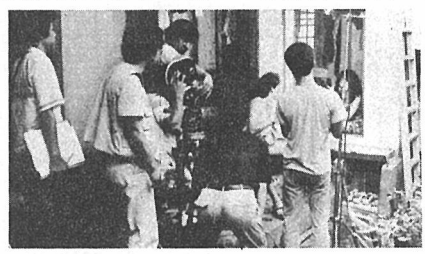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작은 영화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대 영상집단에 의해 중남미 해방영화와 서유럽 영화등이 상영되면서부터 입니다. 미국영화에 익숙하던 우리 대학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위해서 시도된 많은 노력들은 1985년 본격적으로 일어난 대학 영화동아리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작은 영화」라는 개념은 그 매체의 소규모 작한 「인제를 위하여」는 허술하기만 했던 작은 영화의 구성을 놀라울 정도의 기술과 노력으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 「울림」이 제작한 「울림」이라는 작품은 공장 노동자가 된 대학생이 악덕 기업주와 싸워가는 애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 「강아지 죽는다」는 투견을 통해 인간사를 비판한 작품이고, 서울에 대한 환상을 현실을 통해 깨뜨려 나가는 「서울 환가」라는 작품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업적인 건전한 토대속에서 일하던 대학인들이 기성 영화계속에 진출하고 잘못된 한국영화 풍토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영화계에도 민중지향적인 영화들이 서서히 제작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양키의 허황된 문화가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바로 우리자신의 에기로 우리가 같이 힘들어하며 즐거움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작은 영화」는 관객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관객이 호응해 주지않는 영화는 곧 그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재 만
〈정과·신방2〉



▲지난 1월 개봉되었던 영화제작소 「장산곶매」의 「오! 꿈의 나라」 촬영장면

작지만 '소중한' 영상매체

왕산-주체적참여로「공동체」건설

정 남 태
〈용인학생복지위원회장〉

인간이 생활하는 사회의 제반 반영형태를 생활문화라 말하며 이 생활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의 총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주변의 생활문화는 자주적 생활문화와 비자주적 생활문화, 건전한 생활문화와 소비·향락적 생활문화, 민족적, 진보적 생활문화와 친미적·보수적 생활문화, 민중적 생활문화와 착취자의 생활문화등 각양의 문화형태로 나타나는데 미제국주의에 의해 한반도가 강점된 이후 우리의 생활문화는 반민족적, 비자주적인 생활양식의 침탈을 받고 있다.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인 청년학생의 애국적 의식은 자주국가의 주체자로서 서고자 하지만 외세의 노예화교육과 현정권의 억압아래서 변질되고 마비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논리에서 파생된 외세와 독재의 지질되폐문화의 무분별한 유포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활문화의 조장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독소를 제거하고 자주국가건설과정에서 생활문화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기중심적 생활에서 공동체적 생활로 발전되어 지고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공동체 삶에 투여될때 자주국가건설의 정신적 토양을 이룰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공동체 의식의 고양만이 아니라 외부의 침탈생활문화를 배격하는 거대한 힘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생활문화운동은 우리주변의 생활모습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기때문에 우리의 실천영역은 대단히 넓다. 왕산의 생활문화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사랑, 자기본위적 사고를 탈피하고 우리라는 동지적 사랑과 반민주적 외래문화를 배격하는 민족문화 사랑으로 나타난다.

통학시간이 많이 걸리는 왕산의 경우 많은 사건과 여담이 통학버스나 정류장에서 일어난다. 통학버스내의 학습풍토가 타대학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형성되어 좋은 면을 보여주지만, 승차시 개인적 편의주의에 의해 나타나는 새치기현상은 왕산 10년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악풍습이다. 또한, 식당과 휴게실등 우리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자세는 어떠한가? 식당의 식판과 젓가락은 하루 수십개씩 분실되어 희식용 고기구이판으로 활용된후 왕산골짜기 구석구석에 쌓여가고 그 주변은 술병,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그리고 우리학우 횟주머니에 양담배와 그 선전용 라이타가 늘어가고 학교전임로는 밤마다 서울변두리 가라오케 술집을 연상시키는 고성방가 노상술판이 벌어진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생활습성에 길들여 지고 있으면서 민족의 자주권 쟁취를 위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우리들이 버린 휴지, 담배꽁초를 청소하는 용원 아주머니 아저씨의 모습을 보며 기층민중들의 동등한 부의배분을 논한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 보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 청년학도의 생활태도가 주인된 민주적 의식과 자주성이 결여될때, 미제국주의의 비도덕적, 반민주적 생활양식을 추종할때, 우리조국의 미래는 참담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천적 과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생활문화운동은 정치적·경제적 운동과는 달리 타운동의 기초적 토대가 되고 모든 운동으로 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역으로 모든 운동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생활문화건설을 위한 운동이다. 즉, 통학시 새치기추방을 위한 질서지키기운동을 전개하고 공공시설물을 아끼고 양담배, 외제상품불매운동과 지성인다운 공중도덕준수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단순히 계몽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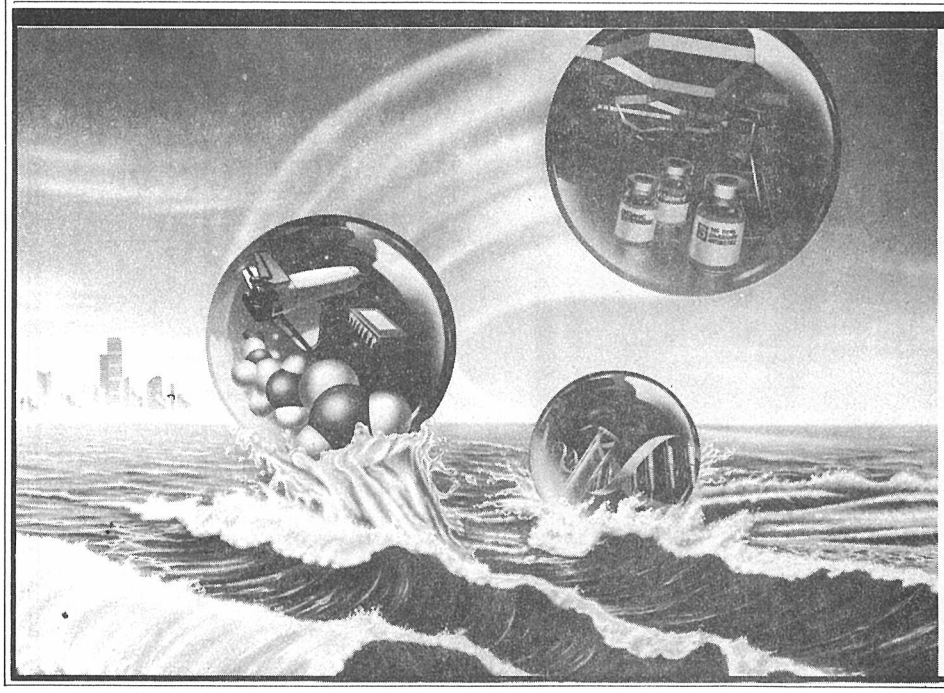
「나」중심의 의식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지니며 우리의 생활풍간인 왕산을 사랑하며, 지질되폐문화를 퇴치하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존중하는 의식을 지니기 위한 생활문화운동이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주체적 참여운동차원으로 승화될때 민족자주문화와 진정한 공동체 건설의 사상적 토양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문화운동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민족자주국가건설을 위한 다양한 운동형태로 전화된다.

지상전람회 신학철의 「한국 근대사」 —구속미술인 작품전 중에서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럭키가 이끄는
첨단화학의 새물결—
新物質·新素材·新資源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손구치는 럭키의 첨단기술력—
럭키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창조의지로 더욱 풍요로운
미래생활을 앞당기기 위해
첨단화학의 새물결을
힘차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新物質의 창조 신물질은 물질의 분자구조를 변형시키거나 고도의 화학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롭고 유익한 물질입니다. 무공해농약, 세그레게 합성섬유… 럭키는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신물질을 창조함으로써 인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新素材의 혁신 신소재는 고분자소재기술과 중용기술의 혁신소재입니다. 반도체·주조신소재, 사용자는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난연 ABS… 럭키는 이러한 첨단 신소재를 창조하여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資源의 개발 신자원은 화학공학기술을 통해 새롭고 새로운 자원입니다. 동물성장백전제, 항미제분… 럭키는 신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식량자원과 미래의 에너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럭키

보되기획

◇교과과정, 그 올바른 개선책을 제시한다

지역학도입절실한 어문계열

(521호에서 계속)

신설·특수어과의 교재 개발부족

동구권 계열등 신설학과나 특수어과등에 주로 해당되는 문제점으로는 교재를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 들여오거나 해당국가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구입, 복사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1·2학년 주요 교과목인 문법·회화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재에 적용되고 있어 「영강독 수업을 겸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지적이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신설된지 채 2년이 안되는 체코어과의 경우 강독, 작문, 회화까지 모든 교재가 미국 대학교재등의 복사본이며 2학년 교과목인 「체코사정」의 경우 미국에서 발행된 「체코슬로바키아」소개 책자를 교재로 이용하고있다.

교재를 제쳐두고라도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로는 특수어과의 경우 한국어판 사전발간이 미흡한 형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재나 사전등 기본적인 학습자료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과과정 개편은 큰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 이상의 문제는 우선 교수들이 담당해야 할 과제로 이에대한 연구작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Ⅱ-2. 몸말

앞에서 전반적인 현행교과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매수의 제한, 기자의 게으름등 여러가지 이유로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을뿐, 각과마다 갖고있는 특수한 문제점을 지적하는것이 부족하였다. 이점은 각과학생회 내부에 「교과과정개정소위원회」(가칭)를 건설, 해결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두번째 몸말은 이런점을 감안,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①단기적 개선책

교과과정이 새롭게 태어난다는것은 본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할수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계획하에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가능하고, 단기적 계획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할것이다.

교과과정의 세분화와 함께 통합을 시도해야한다

현행 어문계열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두가지 특징을 발견할수있다. 첫번째로 어학과 문학의 교과목이 유사한 과목들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과목간의 연계나 계열이 무시된채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학문분야에대해 자세하게 배울수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외대교과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일정정도 이부분에대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어 영어과 3·4학년 교과과정의 경우 어학의 토대가되는 지역부분에 관한 교과는 2과목이 개설되었으나, 어학관련 교과과정은 10과목, 문학관련 교과목은 13과목이 개설되어있는 실정이어서, 교과목의 배정이 균등하게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는 어문계열 모든 학과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두번째 특징인 과목의 세분화가 돼 있지 못하다는 점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목의 세분화는 「지역사정」, 「문화사개론」등 지역학관련 과목에서 특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란어과의 경우 천년이 넘는 역사에 관해 배우고자 할때 「이슬람문화사」 한과목 수강만이 가능해 심도있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학과 문학, 지역관련 과목등 모든 과목이 세분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본교 강의실의 부족과 함께 교과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반드시 과목에따른 「통합과 세분」은 필요하다.

문화·역사등의 교과목 필요한 1·2학년 교과과정

이와함께 어·문학 교과목, 즉 말해 이것이 어문계열 교과과정 개편의 한가지 방안임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1·2학년 교과과정에 어·문학교과목만 개설돼있는 학과는 전체24개과중에서 12개과에 이르며 나머지 과도 지역사정, 문화사등 문화·역사에 대한 교과목이 대부분 1가지만 개설돼 있을 뿐이다.

부족한 과목을 채울수 있는 방안 「학점교류제도」

「학점교류제도」는 인접학과 또는 타단대에 개설된 과목중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할수 있는 과목이 있을 경우 이 과목을 수강,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본교와 같이 특수어과와 군소어과가 많고 하나의 지역권으로 묶을수 있는 학과-중동지역(아랍, 터어키, 이란), 동아시아지역(중국, 일본)-가 있기에 이의 실현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서울대 등 몇몇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학생에게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장점으로 인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학교도 90년도 1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이와 비슷한 형태로써 이란어과와 터어키어과가 「중동정치」, 「중동종교」, 「중동경제」, 「이슬람문화」등을 통시에 개설 본래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지만 실험적인 학점 교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족한 지역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것등으로 인해 학생수강에 많은 호응을 받고있다.

②장기계획

1·2학년때는 어학의 기본을 대체적으로 배우는 교과과정이 바람직하며, 3학년에 와서는 교과과정이 정치부, 문학부, 어학부, 경제부등으로 전공선택 자체가 구분되어야 한다. 「자신의 의도에 따라 목적한바를 공부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이은진교수는 이것이 외국어대학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고, 본교 교과과정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수충원, 강의실등 수많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하루이틀에 해결할수 없다」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강조한다.

장기적 방안 마련돼야함 「지역학도입」

「그나라 언어에 기초해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으로 정의 내릴수 있는 지역학은 본교 교육이념에도 부합되는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이 교육이념에 합당하게 짜여졌으면 최근 수년동안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강하게 지역학 도입을 주장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학의 본교 도입에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우선 교수충원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몇몇 특수어과(스웨덴어, 화란어, 동구권 계열학과등)의 경우 지역학을 담당할 교수가 국내에 전무하며 6·70년대 신설과도 마찬가지라고 알려져있다.

또 지역학을 도입했을 경우 이학강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이부분 학습에소홀해지기쉽다는난점이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역학을 도입하려면 우선 도입가능한 단대나 학과부터 실험대학·학과를 설치, 정치·경제·사회등 일반적인 교과목외에 가능하면 고고학, 지리, 정부론, 국제경영, 신방교과목까지 개설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각과별로 지역학을 교수할수 있는 교재개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학 담당교수 부족문제는 각 연구소나 대학원 교수 중심의 충원이라는 단기적인 계획으로부터 미국등지에서 지역학을 전공한 교수 초빙등 장기적인 해결책까지 모색해야 할것이다.

이·문학에 치중, 기형적인 교육으로 귀화될지도 모를 현 교과과정은 이러한 지역학 도입등의 개편을 통해 개선돼야겠다.

가장 시급한 과제-교수충원

단적으로 스웨덴어과 외국인 교수가 체코어과 회화를 맡고있는 상황에서 내용성있는 교과내용과 올바른 교과과정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밝힌대로 적성에 맞는 분야별로 교과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수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기때문에 교과과정 개편은 일면으로 「교수충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교수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했으므로 (본보 521호 참조)여기서는 교수충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터어키어과 학과장 김대성 교수는 「교수부족으로 교과과정 개편이 미뤄질 수는 없다」며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강사, 대학원생등을 해당지역에 유학보내 학문습득후 다시 본교 교수직을 맡기는 식의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교과과정개편에는 필연적으로 교수충원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교수충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Ⅲ. 맺음말

교과과정개편은 「올바른 대학교육」으로 나아가고자하는 노력으로써 외대내의 산적한 문제점-연구소·교수부족, 좁은 공간-중 하나를 해결, 올바른 「외국어대학」으로의 이미지를 찾아가고자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이 대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할때, 본교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과정 개정위원회」가 교과과정개편에 대해 여러안들을 제시하였으나, 건의기구라는 성격과 근본적인 문제점인 교수충원에 대한 의논이 없다는 점에 의해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각과학생회에서부터 논의를 전개, 올바른 교과과정 개편은 각학과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개편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교과의 내용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명색이 외대 영어과다니는데 영어학원다니는 현실」은 더이상 「학교교육은 원래그래」라는 말로 치부할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의 질을 확보, 교과과정의 발향성을 찾은 후, 어문계열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과과정으로의 개편이 있을 때 「외국어대학」으로서의 올바른 교과과정이 만들어질수있을 것이다.

〈취재·기획부〉

〈글싣는 차례〉

1. 어문학계열의 교과과정(상)
2. 어문학계열의 교과과정(하)
3. 법·정과대의 교과과정
4. 인문·상경·사회대의 교과과정
5. 자연·사범대의 교과과정
6. 교양·부전공 교과과정

지역학 교과목 수용위해 교재개발 시급

교육이념에 합당한 교과과정 필요

이사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없듯이 총학생회도 학생들을 떠나서 살수없습니다"

——신임 부총학생회장 정종근군을 만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학우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학우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9월7일(목)제2차 정기학생총회에서 23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경 학원자주화부 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받은 정종근군(상경·무역4)은 짧막한 소감과 함께 감옥에 있는 김시선 전부총학생회장을 포함, 방학중 구속된 학우들이 생각난다며 말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학생회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와 학우대중은 성실한 비판과 참여로 서로를 이끌어 주어야 하며, 특히 일반학우들은 각급 과학생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총학생회에 의견을 개진, 총학생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합니다」라며 대중속에서 학생회를 강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밝히는 정군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건설에서도 서로서로가 신뢰하는 의식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학기부터 대학생활협동조합을 건설, 학교복지시설을 직영화하여, 나오는 수익금은 복지장학금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환원될 것입니다. 또 한, 교수·학생정례회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행정참여율을 높이고 나아가 총장선출문제까지 확장할 것이며 87·88년도 학교측과 체결한 「합의각서」의 이행촉구, 고시반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라고 밝힌다. 또한 이를위해 먼저, 담배꽁초 안버리기·노천극장의 올바른 사용·강의분위기쇄신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외대인이 외대의 주체로 서는 의식개혁사업을 벌여다갈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문교부의 학생자치회비 분리납부시행에 있어서 타 대학의 자치회비 납부율이 50~60%인데 반해 본교 99%의 학생이 자치회비를 내준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2학기에는 학원자주화를 비롯한 학생회사수문제등 학우대중들과 학생회의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한다.

「학교당국은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대학을 보던 자세를 지양 올바른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바램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부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바램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살 수 없습니다. 학교를 건정으로 사랑한다면 학생회를 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인식하고 언제나 찾아와서 대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학생회는 언제까지나 학우대중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박재일 기자〉

흡산의 소리

용인, 강북통학생 교통불편 심해

마장동 티미날이 구의동으로 이전된 지금 용산터미날마저 양재역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학기초 서울역 교통편이 사라지면서 그나마 서울역 근처인 용산에서 버스로 통학을 해왔는데 앞으로 용산터미날이 양재동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서대문구인 우리집에서 학교까지 가면 3시간이상 걸리는데, 이것은 학교까지 가장빠른 길이다. 그런데 용산터미날이 양재로 이전해 버린다면 앞으로 학교까지 4시간 가량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서울에서 부산가는 꼴이니 날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역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제는 차비가 많이 든다는 걱정보다 차안에서 허비되는 9시간이 아까울 뿐이다.

이러한 걱정은 나만은 아닐것이다. 은평구나, 성북구, 도봉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마치 시골가는 듯한 등교시간을 어쩌해야 하는지 학교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이다.

〈인문대 서대문구 통학생〉

도서관 열람실좌석 번호 부착했으면

도서관의 열람실 출입구에 총학생회에서 설치한 메모판은 참으로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친구들과의 약속을 이곳 메모판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모지들을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 보면,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듯한 열람실 내부도를 그려놓은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부도도 엉망이고 그것을 보고 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기도 미안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신발소리를 내며 걸어다니는 것도 신경이 제법 쓰인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각과석마다 번호를 붙였었으면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열람실 내부도를 그릴필요도 없고, 쓸데없이 열람실을 배회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참고〉
도서관에 있는 네개의 열람실 총 좌석수는 2천2백80석이고, 1열람실에는 50열, 2열람실에는 51열, 3열람실에는 19열, 그리고 4열람실에는 원탁 좌석을 제외하고 20열 가량이 있다.

〈정파·신방4 김훈〉

수업만 끝나면 모두 줄행랑 용인, 문화·휴식공간 필요

집중호우로 임청난 피해를 주었던 여름의 꼬리를 밟으며 중부내륙 산간지방에 위치한 내 학교로 되돌아 왔다. 하지만 농부가 머나미린 농촌처럼 썰렁한 분위기에 잠초만 무성한 운동장을 보면서, 선풍기 하나없는 열람실에서 미지말을 흘리면서, 땡볕 밑에서 냉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학이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하는 의문에 머리가 아프다.

우리 용산 캠퍼스는 그리 길다고 말할 수 없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있다. 비록 필요한 강의동, 학생회관이 다 갖추어져있다고 하지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서관과 문화공간,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갈곳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한다. 그렇기때문에 8교시가 되면 모두가 지치고, 짜증스러워하는 얼굴로 수업에 들어간다. 어떤 학생들은 빈 강의시간이 길 때는 다음강의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또 수업만 끝나면 학생이고 교수님이고 봇짐싸들고 집으로 줄행랑 친다.

학생도 교수도 머무르기 싫어하는 캠퍼스가 용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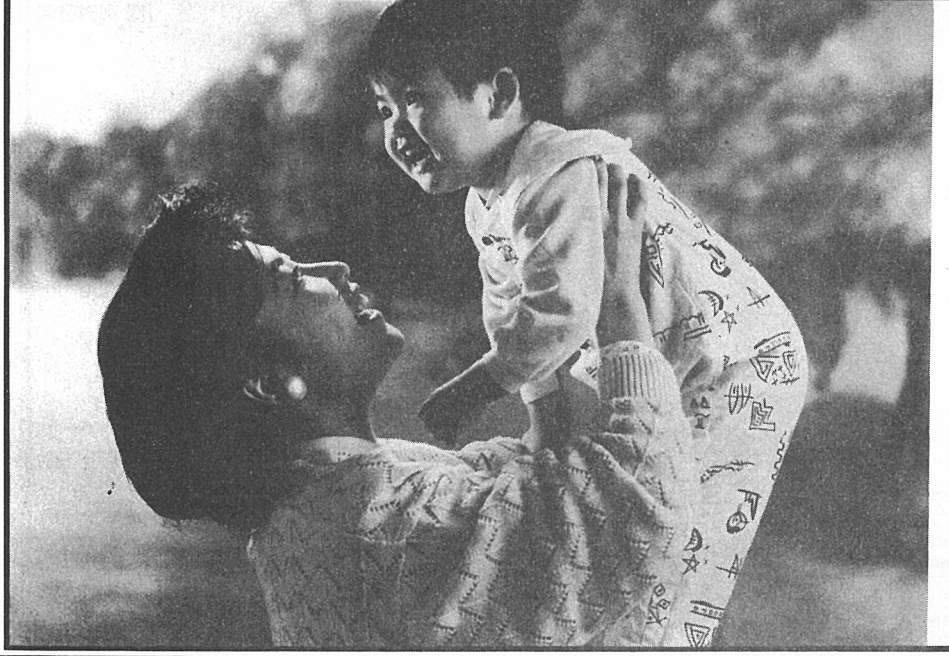
산속 절간 같은 곳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서 학점 잘받아 장학금 몇푼 받았다고 그 학생이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학생이라고 할수는 없다. 용산의 발전을 바란다면 더이상 방관자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자. 또 학상 요구하는 말이지만 학교측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철저히 시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용산은 영원히 「한동안 다녔던 학교」에 불과할 뿐이다.

〈서문·포이2 서영철〉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더욱 밝고 편안한
생활 속의 기쁨—

함께 누리는 풍요의 기쁨—
언제나 럭키가 함께 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생활—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사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더욱 풍요로운 생활의 기쁨을
창조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럭키—

럭키의 모든 제품 속에는
"풍요로운 생활"을 창조하려는
럭키의 의지와 40여년간 축적된
첨단기술력이 담겨 있습니다.

럭키

용인, 식당문제 심각하다

음식질·위생등 많은 문제점 지적돼

식당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필요

본교 용인캠퍼스 4개 식당이 음식의 질, 종류뿐 아니라 위생시설, 위생검사와 식당관리 체계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이의 개선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용인캠퍼스 식당은 4군데이며—어문학관학생식당(이하 어문관), 기숙사 학생식당(이하 기숙사), 교양학관 교직원식당(이하 교직원) 학생회관 학생식당(이하 학생회관)—학교외부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등교하는 모든 외대인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식당이용 인원이 어문관의 경우1천8백~2천명, 학생회관의 경우 8백~1천명, 기숙사가 7백여명, 교직원식당 1백50여명(고시원생 포함)이라는데서도 알수있다.

이렇듯 식당을 많은 인원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종류와 질을 살펴보면 음식의 종류는 어문관의 경우 스낵종류, 백반 그리고 밥종류등 일주일에 14가지정도가 준비돼 종류는 다양하지만 음식질은 형편없고, 이름만 다른 음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들면, 왕산국수, 유부국수, 오랭국수등은 이름만 다를뿐, 맛이나 음식재료는 거의 동일하다. 이런 문제점은 나머지식당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기숙사는 7백원짜리는 식사가격에 비해 음식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음식의 영양가와 종류를 조정하는 식단의 경우, 어문관과 교직원은 업자가 고용한 영양사가 준비하나, 학생회관은 영양사가 없어 학생들은 칼로리와 영양가 고려안된 음식을 먹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교와 업자측이 체결한 계약서에 명기된 3조 2항의 「외부영양사로 하여금 한학기당 정기검사 4회와 부정기검사 4회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준수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은 학생들에게서 지적되고 있는 식당 위생문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원성이 잦아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청된다.

먼저 종업원들의 숫자부족으로 한사람이 식기세척, 조리, 배식등 많은 일을 하는 점과 위생교육이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방의 협소함도 위생문제의 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는 학생회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어문관보다 약간 적은 수가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는 어문관의 1/4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식당의 협소와 함께 주방의 크기도 매우 작아, 배식되어야 할 음식옆에 버려질 음식등과 같은 오물들이 있어 위생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또한, 학교측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은 용인 위생시설의 문제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자들과의 계약서 1조에 「식당의 시설및 비품일체를 학교측이 대여」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당에 설치된 위생시설은 어문관이 식기열소독기를 갖춘정도 제외하고는 모두 컵소독하는 자외선 소독기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이는 본교 서울캠퍼스 식당이 식기세탁기, 열소독기, 자외선소독기를 갖추고 있음에 비해 용인캠퍼스식당에 대한 학교측의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위생상의 문제점은 용인식당들이 전문적인 위생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어문관과 교직원은 1개월에 한번 용인보건소 방역대행업체가 방역을 하는 것이 위생검사의 전부이며, 학생회관과 기숙사는 3개월에 한번 방역을 하는것이 고작이다. 이러한 부족한 위생검사의 해결은 학교측이 전문적인 위생검사요원을 두거나, 그것이 재정상 어렵다면 외부기관·보건소, 위생검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식당관리를 맡고있는 학교측기관은 운영과, 관리과이지만 두곳 모두 업무가 과다함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식당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식당관리인 중 위생과 영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학생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위원회도 식당문제해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않고 있다. 작년 9월1일 식당복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지난학기 식당에 백지대자보를 부착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등의 노력은 보였으나, 식당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은 못하였다. 이는 소비의 주체인 학생들이 식당의 위생, 음식질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실례로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는 식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5백명의 학생서명을 받아 식당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파기와 식당입주시 업자가 내는 기탁금의 압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위에서 밝힌 식당문제는 「위탁경영」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적장치가 있어도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익보다는 학생을 생각하는 직영화가 필요함은 학교측·학생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들을 감안할때 당장 실시는 불가능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속에 용인캠퍼스 독자적인 직영화를 건설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식당의 위생과 음식질등의 문제는 직영화와 상관없이 학교측의 식당관리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 위생검사를 실시로 해결해야 할것이며, 업자는 최대한의 서어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음식종류를 개선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학생측 특히, 복지위원회는 학교측식당과의 상시적 접촉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박종진 기자〉

평가를 넘어 처벌로

○…때마다 철마다 잠잠할만하면 학원자율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치」, 「선언」을 발표하는 문교부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고.

총학생회 자치회비 분할납부의 진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립대학평가제도」란 새로운 제도를 마련, 「강제적 아부」를 강요하는 것이 그것.

자의적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문교부 나으리들, 그러다간 「평가」를 넘어 「처벌」받는 날이 올 것.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애국학생들의 시위전압 과정중, 시위기술 배운 잠조들 이젠 학내에서 폭력시위 보여줘.

일마전 모대학에서 시흥현 전군식과 북한가극 「피바다」가 공연되자, 곧장 학내에 들어온 잠조들, 좌경용공 뿌리뽑겠다며 최류탄과 몽둥이로 시위를 벌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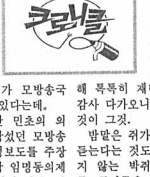
변변히 일어나는 잠조들의 학내 폭력시위백만 애국학생들의 돌과 꽃으로 강제진압 해야할 사(事).

○…「참 교 육」의 전통에 이어 「참보도」의 목소리가 모방송국에서 환창 일고 있다는데.

사연인즉, 그동안 민초의 외식을 속이는데 앞장섰던 모방송국에서 노조가 공정보도를 주장하며 보도·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요구하자, 경영진이 거부, 파업에 돌입한 것이 그것.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소명을 안지키는 방송국경영진, 그러다간 민초에의해 불것 못보고 먹을것 못먹는 신세될터.

○…낮밤, 밤말 가리지않고 엿듣던 안기부 도청부대에게 한 가위를 맞아 애년에 없던 휴가가 주어졌다고.



프랙치, 야간학 나난입등이 수백 새라 심판 또한 이성을 잃어자 구속에 점차 별안간 경기를 중단시키며 수백로 실적이 없자, 여명의 홍산이 지켜보는 가운데각 전화국마다 욕설을 퍼부었다고.

도청박스를 설치 해 특특히 재미를 보다가 국정감사 다가오니 허겁지겁 철수한 것이 그것.

밤말은 쥐가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것도 옛말, 밤낮 가리지 않는 박쥐(쥐+새)들, 요즘 뜸질좋은 쥐약도 많다는데 앞날이 걱정되겠소.

○…이문동 8천학우의 대동한마당이라는 취지아래 열렸던 모의 월드컵 축구대회가 막판 결승전에서 「대동」을 무색케하는 사태가 발생해 뒷맛이 씁씁.

사연인즉, 아무개 과의 한 홍산이 열성응원중, 이성을 잃었는지 심판의 경기 진행에 방해되는 언성을 높이자, 이에 질세라 심판 또한 이성을 잃어 급기야「대동」아닌 「분열」로의 조짐이 보일 정도가 되었으니 진정한 홍산들간의 이해와 사랑을 위한 한바탕 살풀이라도 해야할듯.

대동을 위한 살풀이

서울, 정기학생총회 개최

"학생의견 폭넓게 수렴할 터"

서울캠퍼스 「제2차 정기학생총회」가 지난 9월7일(목)오후2시 노천극장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학생회 전군식」과 함께 거행되었다.

운영위원 및 신임집행부장단 소개, 시립대, 서울여대 총학생회장의 전군식 축하연설이 진행된 이날 총회는 전대협의장 임종석군(한양대총학생회장)의 어머니 김정숙씨가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정권의 학생회탄압과 관련, 20대, 22대 총·부학생회장단은 「불과 몇년전만해도 사복경찰이 자주 학내에 진주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당했다」며 「힘들여 성취한 학생회를 학생들 모두의 힘으로 사수하자」고 말했다.

이어 부총학생회장 인준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정종근군(상경·무역4)은 「상반기 사업이 과학생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점을 자성하면서 하반기사업은 학원자주화 투쟁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으며, 2학기의 주요쟁점인 전교조사수와 입수경학우사법처리반대투쟁을 학우대중과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총학생회 전군식」은 총학생회장 정재원군(동양·일어4)의 총학생회 2학기 발족전인문강독뒤 초대된 안양민중문화운동연합노래분과 「새벙」화노래극 공연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상경대학생회 전군식 및 복학생 환영대회」가 지난 6일(수)노천극장에서 개최되었으며 6일 열리기로 한 용인캠퍼스 정기학생총회는 오는 22일(금)로 연기됐다.

자대기련, 출범식가져

올바른 기자관 정립 제기돼

자유언론실천 대학신문기자연합회 (이하자대기련)는 「하반기 자대기련 출범식」을 각대학신문기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10일(일) 서강대에서 개최하였다.

자대기련의장 황호곤군(서강학보편집장)은 하반기 사업보고 후, 출범선언문 낭독에서 문목사·임수경학우 사법처리반대와 전교조사수에 관해 「조국의 분단된 상황과 왜곡되고 굴종된 교육현실은 자대기련 6백여기자들의 분연한 일어섬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통일 구시대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했다.

이후 「대학신문과 매체혁신」에 관한 강연순서에서 김종배씨(86년서강학보 편집장)는 「독자에게 보다 친근해지려는 각대학신문사의 노력이 폭넓게 진행중인 것은 매우 올바른 현상이며 이를위해서는 기자주체들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원연합체전 개최

상호교류 화합 목적

「제1회 총장기쟁탈 5개대학원 연합체육대회」가 대학원간의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동여대 학원을 제외한 4개대학원 2백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가운데 지난 9월10일(일)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축구, 배구등 6개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돼 일반대학원이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번 대회에 대해 교육대학원 학생회부회장 이상언군(국어교육4학기)은 「대학원간의 화합과 함께 동목금인상등에대한 공동대책의 필요성을 느껴 준비했고 야간, 주간대학원생간의 친목도 목적으로 하고있다」며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영화상영안내(9월18일(월)－22일(금))

영화명 / 날짜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18일(월)	스탠드바이미(stand by me)	스플래쉬(splash)
19일(화)	욜(Yol)	창가(Rear Window)
20일(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마지막 황제 (The Last Emperor)
21일(목)	플래시댄스(Flash Dance)	대화 (The Conversation)
22일(금)	호스티츠(Hostages)	천녀유혼
상영시간 및 장소	매일오후2시 시청각 비디오룸(2202호)	매일오전10시어문학관 영사실(1416호)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다음주는 추석으로 인해 휴관)

교수동정

◎「이란문화연구소」, 책기증

이란의 「이란문화연구소」에서 이란어과 푸르남다리안(Pour Namdarian)교수의 주선으로 이란의 문화·역사·철학관련 서적 86권을 9월4일 이란어과에 기증.

◎김승진교수 책출간

무역학과 김승진교수, 「3고현상이 기업체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동아리소식

◎「얼소리」연주회참가

서울캠퍼스 「얼소리」는 9월24일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에서 개최되는 「경인지역 국악연합연주회」에 참가할 예정.

◎「호우회」보육원방문

서울캠퍼스 「호우회」, 9월16일 경기도 운천에 있는 「보화보육원」방문예정.

◎「야구부」야구대회 개최

용인캠퍼스 「야구부」, 9월2일(토)부터 28일(수)까지 제3회 「부총장기왕산야구대회」개최.

◎「산악부」전시회

용인캠퍼스 「산악부」, 9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산악장비및 사진전시회 개최예정.

학과움직임

◎헝가리어과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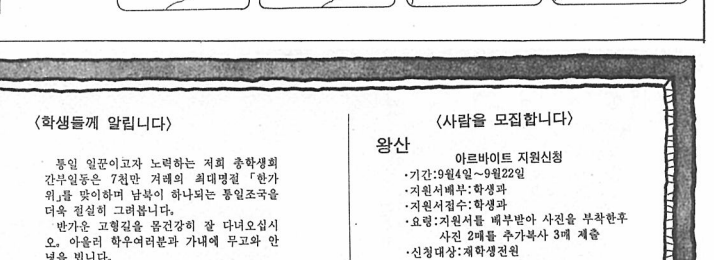
헝가리어과, 9월21일(목)7·8교시에 교수님과 함께 간담회, 장소 추후 공고.

◎환경학과 엠티(M·T)

자연과학대 환경학과, 9월9·10일 양일간 학술제준비및 2학기 파일정 입안을 위한 엠티(M·T)를 강원도 춘천에서 가짐.

◎「민중서우」발간

서양어대학생회 편집부, 「민중서우」제3집 여름호 발간.



비둘기협판

〈이런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제1회 임수경 통일 문학상

안녕하십니까?

임수경 동지와 함께 조국의 해방 통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왕산캠퍼스는 임수경 학우의 쾌거를 계승하며 4천만 민중과 함께 할수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제1회 임수경 통일 문학상」을 제정하였습니다.

- ●응모대상:전국의 백만학도및 애국시민 집단창작단
- ●모집부문:시, 소설, 수필(분량제한없음)
- ●원고마감:자주적교류 쟁취 원년 10월30일
- ●시상:각 부문 당선작 100만원, 가작 30만원(단, 당선작이 없을 경우)
- ●심사위원:당선작 발표와 함께
- ●발표:11.3 학생의날

보낼곳: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89 외대 총학생회 (0335, 33－1697)

■주최:투쟁의 불사조 한국외국어대학교(왕산) 총학생회

■후원:용성총련, 전대협, 전민련, 정의구현사제단, 민족문학 작가회의, 민주화를위한 변호사협의회, 민가협, 민통련

왕산

제2회 일본어과 증합학술제

·일시:9월25일(월)~9월29일(금)
·장소:어문학관로비, 2301호
·일정:9월25일(월)사진전시회(수요일까지) 자료전시회(수요일까지)
9월26일(화)영화상영(수요일까지)
9월27일(수)초청강연회(경제경교수)
9월28일(목)심포지엄
9월29일(금)원어가요 발표회, 가요제

전자계산학과 학우 여러분께!

본 학과에서는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인 컴퓨터전시회에 출품할 소프트웨어(SOFTWARE)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공모＊

·자격:전자계산학과 계학생
·사용종류:피시(PC), 유니스(UNIX)
·마감:9월28일
·시상:대상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상2명

－자연과학대 전자계산학과－

제2회 서반아 예술제

왕산공연:1989.9.21(목) 오후4:00 자연대강당
이문공연:1989.9.23(토) 오후5:00 대강당
주최: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문대학 서반아어과

〈학생들께 알립니다〉

통일 일꾼이고자 노력하는 저희 총학생회 간부일동은 7천만 겨레의 최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며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조국을 더욱 절실히 그려봅니다.

반가운 고향길을 몸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아울러 학우여러분과 가내에 무고와 안녕을 빕니다.

－애국외대총학생회－

왕산

브라질 포르투갈어 연수

·장소: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연방대학
·기간:1월중 (약40여일)
·인원:약20명
·경비:약150만원
·신청방법:포르투갈어 과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제출

전공언어를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세계는 당신의 전공언어로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서신 교환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저희 외대 에스페란토학회는 여러분의 중개자가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국제반신권 2매와 국내 우표2매를 동봉하시어 외대 에스페란토 학회로 보내주시면 비수교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친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학생회관 408호)

－외대 에스페란토 학회－

〈사람을 모집합니다〉

왕산

아르바이트 지원신청

·기간:9월4일~9월22일
·지원서배부:학생과
·지원서접수:학생과
·요령:지원서를 배부받아 사진을 부착한후 사진 2매를 추가복사 3매 제출
·신청대상:재학생전원

이문

축구부 신입부원 모집

89, 88학번 예비역 누구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뜨거운 사랑을 받으실 것 입니다.

－축구부(사회과학관지하)－

손말 사랑회(수화)회원모집

매주 월요일 오후5시 3관 203호에서 수화공개강의가 있읍니다. 수화에 관심이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야학교사모집

·교육과정:중·고등부
·자격:남·여대학생
·연락처:400－1053
·주소:송파구 마천동 천구교회내 다산중·고등학교

〈이 광고란은 무료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광고문의: 서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기자실(학생회관 212호)

만리장성에서 흘린눈물

◇중국 연수를 다녀와서

권 명 희
〈서양·노어3〉

정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주의권 연수를 보낸다는 발표와 그 연수단 속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그시해물을 낸를 받아먹기에 앞서 그 의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신문등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대학생에게 사회주의의 실상을 알고「정신을 차리게」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뒷면의 내용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던져지는 중국에 대한 우호의 제스츄어였다.

이젠 천박하기까지한 반공논리와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된 사례나열등으로 위협적이었던 사전(事前)연수 속에서, 뭔가 중폭되는 고민과 부담을 멀칠수가 없었지만 자그마한 분단의 나라에 사는 대학인으로서 다른 체제의 실모습을 보고 느껴 논리뿐인 반공으로 가리워진 눈을 뜰 기회라는 조그만 결단이 나를 중국으로 이끌었다.

중국의 첫 인상은 오히려 「자유」였다. 농촌과 맞닿아있는 활주로엔 벽이 없어 민간인이 자유롭게 들어와 놀고 있었고 통관 절차도 서울이나 홍콩보다 훨씬 간편했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도시엔 고층의 아파트가 늘어서 있고 평수가 작은 이 아파트들은 정부가 지어 일반 인민들에게 빌려준다. 인민들은 한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2천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물세, 전기세, 집세등 주거에 필요한 모든 세금이 해결된다.

농촌의 풍경은 우리나라의 농촌과 많이 달랐다. 보통 2~3층의 집을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농촌은 오히려 도시보다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였고, 일을 함께 필요한 탁아소와 늙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에겐 양로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어디를 가나 이러한 집단주의의 구현은 제도로 보장되어 있었다. 학비가 없는 대학은 물론 공장역시 기숙사와 탁아소가 있고 전원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끔 되여 있다. 또한 호텔웨이터의 봉급이 대학교수보다 많아 직업의 귀천은 거의 없다고 느껴졌으며 그래서 교수들이 연구를 잘하지 않는다는 안내인의 말도 있었다.

연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광일색인 낮시간엔 서호(西湖), 이화원, 만리장성, 자금성등 중국의 역사를 한 몸에 담고 있는 유적들을 둘러보았다.

11억이라는 인구와 함께 이해가 가지않을 정도로 규모의 거대함을 자랑하는 그 유적들은 중국의 중화사상, 큰대(大)자 하나면 설명되는 중국의 몸집을 보여주었다. 만리장성에 갔을 때 그 규모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일단의 할머니들이었다.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연변에서 관광 오셨단다. 우리 일행을 보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을까.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한마디로 녹아드는 감정, 남한과 북한을 모두 사랑하고 여서 통일이 되기만을 바라는 할머니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버스를 타고 「역사」를 들러보는 관광보다 진정한 연수의 의미는 7시이후의 자유시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비단으로 유명하다는 항주에서 방학을 맞아 여행중이라는 북경공업대학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가졌으며 대부분 영어에 능통했다. 모택동을 존경한다며 모택동에 대한 존경의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북경사태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은 물론 천차만별이겠지만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반혁명」이었다는 인식에 근접해 있었다.

한 중국인은 국가보안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들어간 임수경양(중국에서도 전대협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양은 유명하다)과 북경사태를 주도한 학생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으로 도망칠 여권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비교해 가며 임수경양을 「훌륭하다」고 평하는 한편, 북경사태의 불순성을 이야기하기도했다. 또, 우리가 바로 임양과 같은 학교학생들임을 밝혔더니 매우 놀라며 반가와하는 모습이었다.

중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11억이나 되는 인구와 생산력의 고도화문제로 느껴졌다. 현재, 봉건제에서 곧장 사회주의로 넘어간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의 부재는 개혁과 개방을 통한 생산력의 상승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 안내를 담당했던 조선족중국인인 이선생님도 중국을 초기 사회주의라 부르며 올바른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제도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쓰는 외폐와, 일반인민들이 쓰는 인민폐로 나뉘어 있는 화폐의 이중구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고급물건을 살 수 있는 외폐의 선호나, 달러의 선호로 인해 암달러상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중국개방의 문제점과 경제발전의 낙후를 동시에 조명해 준다.

중국에 대한 총체적 인상은 후한 인심과 친절, 낙후된 생산력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낙관적이고 유연한 자세, 평등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9박10일간의 중국여행이 어찌 중국의 모든 것을 가슴에 안겨줄 수 있을까.

강남 코끼리 만지기식의 기형적이고 불철저한 감상속에서 중국과 중국의 사회주의, 말로만 듣던 사회주의 그 자체에 대해 논하고 평가하긴 이르다. 오히려 지금 가슴에 남아있는 건 그곳에서 만난 연변의 조선족들에 대한 기억이고, 역사의 얼룩을 가슴에 안고 연변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선족 타국인으로 살고 있을 우리 민족 모두가 만나는 통일조국에의 꿈이었다.

파수대

네가 가서 말하라/열두번 쓰러져도 다시일어나/붉은피 흘리며 다리 절면서/네가 가서 말하라…/녹대들이여, 이땅을 떠나라!

〈지난6일 서울대「서총련 2학기 진군식」에 난입한 경찰들〉 허행전 기자

대학극 무엇을 할것인가

◇「연결」의 「아 아빠…」를 보고

윤 선 희
〈서문·독어3〉

「아 아빠 가엾은 우리아빠 엄마가 아빠를 옷장속에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난 어쩌나 슬픈지 몰라요」라는 긴 이름을 가진 작품이 본교 극예술연구회「연결」의 제6회 정기공연으로 상연되었다.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사물 내면의 요소를 형상화하기에 주력하는 미국작가 「아더 코피트」의 1960년 작품인 이 극은 결혼실패로 독선적·부정적 성격을 갖게된 어머니와 그녀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아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의 세상에 대한 불신과 경멸로인해 아들 「조나단」은 어머니의 소유욕과 과잉보호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애인이 생기면서 어머니의 구속에 반발을 하게되며, 이때 애인 「로잘리」는 조나단에게 새로운 소유욕을 느낀다. 로잘리의 또다른 유혹에 조나단은 이를 거부하며 그녀를 죽이고만다.

극의 종결과 함께 우리는 한 인간이 타인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구속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간의 자주성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저지되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확대·과장된듯한 인물설정과 옷장속에 매달린 남편의 시체등이 보여주듯이 이극은 전체적으로 상징성이 두드러져 장면들의 이해가 어렵고 줄거리 전달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난점이 드러났다. 또 호기심반을 자극하는 내용들은 극전체의 의미보다는 흥미와 긴장감을 고조시켜 공연전체를 통한 감동이 적었다.

인간이 자유를 억압하고, 억압당하고의 문제의식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역사 의식과 사회의식이 결여된 채 한 인간의 자유를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은 지극히 관념적이고 감상적인 무의식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연결」의 공연을 대할때, 무대위에 어떤 작품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모든 예술행위는 보다 보편적인 감동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에 대해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감동은 보편적일 수 없다.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한 인간의 의식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진정한 감동은 현 사회의 모순을 예리하게 짚어내면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강렬한 삶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애정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높은 예술성을 소재의 난해함과 관념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70년대의 「탈춤부흥운동」이후 우리 연극계는 기존의 서구 무대극양식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현실을 대변하는 「민족극운동」을 계속해왔다. 우리는 이땅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진리를 밝히는 길이라면 선봉에 서야할 청년학생들이다. 이번 「연결」공연을 보면서 상업주의에 물들고 우리의 현실과 정서와는 동떨어진 기성 극단의 서구 무대극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느꼈다면 나의 지나친 과장일까?

대학인으로서 기존 연극계의 잘못된 양식을 되풀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진정으로 연행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민족에 대해, 참다운 연극세계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실천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지난 방학동안 준비로 땀 흘렸을 「연결」 회원들의 노고와 정제된 연극을 보여준 성의에, 아쉽지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인간의 자주적인 본성표현 작품선정에 많은고민 필요

문예산책

신간소개

노동과 굿
—이보형·주강현 외 지음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세계관에 입각하여 굿의 이론과 실천을 담아내고 있는 본격적인 굿론집이다.

70년대 이래 논란되어온 일과 놀이 사이의 관련에 관한 토대와 성격을 밝히고 근로대중의 자주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학민퍼냄 값 3천6백원〉

과학적 사회주의
—G.P. 체르니꼬프 지음
—노중기 옮김

과학적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필된 입문서로, 러시아의 10월혁명을 비롯한 사회주의혁명과 반전, 평화, 환경의 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의 개념들로 정리하고 있다.

사회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인류의 역사적 경험과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동원하여, 최근 사회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 그리고 평화와 사회진보를 위한 투쟁을 일관된 관점하에서 서술하고 있다.

〈백두퍼냄 값 3천원〉

학교야 학교야 뭐하니?
—문학교육연구회 지음

열악한 교육환경과 제도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아이들의 꿈이 자랄 수 있는 참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담긴 교육만화·꽁트집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나쳐 버리기 쉬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소재로 삼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한 필체로 엮어내고 있다.

〈풀빛퍼냄 값 3천원〉

문화단신

멋있는 동지
—극단「현장」

노래극「멋있는 동지」가 9월 13일(수)부터 9월19일(화)까지 예술극장「한마당」에서 공연된다.

지난 6월 고대에서 있었던 「여성노동자 문화대동제」를 위해 준비했던 공연을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직장인의 사랑과 애환, 그리고 노조원들의 투쟁을 노래의 정서로 생동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연락및 문의처:극단현장(869-2773)

알 림

필자사정으로 인해 이번 주 「우리말 쓰임새」는 쉽니다.

굿바이 대통령!

태우! 잘있나? 두환이와는 이제 놀지말게. 준규나 호용이와도 사이좋게 지내. 대중이나 영삼이와도 좀 놀아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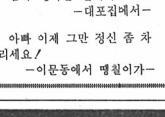
—지승에서 승만이가—

혼들어 주세요, 노태우 정권.

—한 청년학우—

9시뉴스를 알려드리죠. 노태우 대통령각하께서 망국의 파쇼대오 전독련(전세계 독재정권 연합회)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헐랭이—



주제:굿모닝 대통령

삼가 명복을 빕니다.

—대포집메서—

아빠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이문동에서 명철이가—

한때는 군·사·부일체라 했거늘 이제는 군·사·부 모조리 흩어질 지경이다.

오호통제라!

—왕산 자(子)—

보고 싶어요. 우리 만날까요? 어디서? 우리 오빠(김시선) 가 있는 성동 구치소에서

—국토순례반 개구리—

평소에는 보기 어렵지만 생백주와 함께 고추장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 바로 노가리다.

—이문동 술고래—

제27회 외대문학상 작품모집

외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외대의 문학혼은 어딘가에 숨쉬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치열한 고뇌와 지성의 혜안으로 척박한 외대문학 풍토를 개척할 스물 일곱번째 외대문학상에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부문:시(3편이상)·소설(60매 내외)
평론(50매 내외) 번역(60매 내외)
희곡(50매 내외)

▲접수및 문의처: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학생회관 203호
용인:학생회관 212호)

▲심사위원및 상금, 마감일:추후발표

외 대 학 보

첨단의 FA기술·정상의 FA기술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GoldStar
공장자동화(FA)의 精通派·實力派
GoldStar System Technology
공장자동화의 戰略的 構想은 精通派·實力派에 맡겨주십시오.
공장자동화에 대한 요구는 기업체별, 업종별, 단계별 등으로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공장자동화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다양한 기술로 대응하고, FA개념설계에서 통합 FA라인의 구축까지 이룩할 수 있는 공장자동화의 精通派·實力派 — 金星
금성은 첨단 FA를 통한 진정한 파트너로서 귀사에 경영 청신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금성 產電部門
●金星產電●金星計電
●金星機電●金星아니텔